

2020 Annual Report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첫 1년의 기록

STAY.G

2020 Annual Report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첫 1년의 기록

STAY.G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스태이지



강남Gangnam의 새로운 휴식과 힐링의 공간STAY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며STAY 살고 싶은 도시 강남G



1인가구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STAGE

2020년, 우리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없이 덜컥 만난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동시에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의 첫 한 해도
상상과는 많이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STAY.G는 1인가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오프라인에 만들어진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2020년의 목표는
강남에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S T A Y . G



1층 공간은 방문을 열면
거실 대신 복도를 마주하는
1인가구의 거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했습니다.
누구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소파에 기대 누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강연, 워크숍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스테이지가 있고,
토론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세미나실,
1인가구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상담실,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공유부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인가구가 누릴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정성껏 만들어 두었으나
STAY.G는 2020년 한 해동안 4번의
기나긴 휴관 기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들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소통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넓히듯이
STAY.G도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STAY.G라는 거실로 1인가구를 불러모으는 대신, 1인가구의 집으로 STAY.G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비대면으로 강연을 들으며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었고, 집 앞에 배송된 밀키트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라이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언택트로 만났어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STAY.G의 처음 계획대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성장했습니다.

1인가구의 마음건강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집에 갇혀 지낸 시간이 길었던 2020년은 어쩌면 1인가구에게 유독 힘든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공간에 혼자 머물러야 했으니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개인상담지원, 마음건강 워크숍 등을 통해 1인가구의 마음을 들여다 보고 토닥여주는 센터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세상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STAY.G는 달라진 세상 속에서 1인가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들이 필요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지지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는인사			
센터장 정재욱	16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이사장 서준렬	18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소개	20		
STAY.G의 비전과 미션	21		
한 눈에 보는 2020년	22		
STAY.G를 알리기 위한 활동들	24		
STAY.G 공간소개	26		
		STAY.G 사업 소개	
		1인가구 안전망 구축 사업	
		스마트안부확인 서비스+TV안부확인 서비스	36
		1인가구 네트워크 구축	38
		1인가구 건강 클래스	40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인가구 소모임 지원사업	46
		건강한 음식과 함께하는 소셜다이닝	52
		강연 및 액티비티 프로그램	54
		1인가구 활력지원	
		1인가구 특화상담 프로그램	60
		문화예술 프로그램	64
		1인브랜딩 지원 프로그램	68
		STAY.G와 만나기	123

2020 Annual Report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첫 1년의 기록

여는 인사 ①

2020년은 우리가 모두 처음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딜가나 마스크를 쓰고, 사랑하는 가족·친구와 멀어지고,
때로는 혼자 갇혀서 일해야만 했죠.
어쩌면 혼자 사는 1인가구들에게는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소통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만나지 않아도 따뜻한 감정을 교류하려는 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의 첫 해,
‘전국 최초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것도 낯설고 새로운데
이런 시대를 만나면서 더욱 새로운 실험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만남과 비대면이 결합된 1인가구 소모임,
라이브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셜다이닝,
안전을 위한 스마트홈 지원 등 사업 하나하나가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1인가구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인브랜딩 지원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으며 큰 성과를 거두었고,
여기서 성장하신 분들이 강사로, 작가로,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1년의 STAY.G는
이러한 도전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욱 넓고 깊게 활동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1인가구가 있는지,
취업·일자리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지,
주거와 안전문제로 고민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하나 살피며
1인가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도시,
1인가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장

정재욱

여는 인사 ②



안녕하세요?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이사장 서준렬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와 기후변화로 공급의 제안을 맞이하는 현시대에, 우리 사회는 이미 생산된 공간과 자원, 우리 지역에서 공유될 수 있는 각종 재화들을 창의적으로 재생산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한국공유경제진흥원은 공간과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과 다양한 계층들이 선호하는 공유경제 모델을 기획하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하는 공유사회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강남구에서 만든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가 강남구 1인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더 행복한 커뮤니티가 시작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질과 부가가치를 창출 해 나가는 강남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이사장

서준렬

현)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겸임교수

현)학교법인 덕명학원 이사장

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임원



[사]한국공유경제진흥원(KSEO)은 2016년 4월 발족한 한국공유경제학회(전신)로 시작하여 2018년 1월 기획재정부 소관 대한민국 최초의 공유경제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KSEO는 공유경제 발전 모델을 개발하여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편의시설 마련, 기관 유휴시설물을 활용한 만족도 높은 시민 공간 구현, 공유 모빌리티를 통한 관광도시 생태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뿐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시는 길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길 12 트레퍼 빌딩 4층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소개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30%를 넘어 우리사회의 주된 가구 유형이 된 '1인가구'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인가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설립하고 (사)한국공유경제진흥원이 위탁운영하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1인가구가 있는 그대로 온전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STAY.G의 비전과 미션

VISION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도시!
1인가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

MISSION

1인가구 맞춤형 사업을 통한 삶의 질 개선

1인가구의 삶을 돌보는



- 1인가구 안전망 구축사업, 1인가구 특화상담 등
-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스마트홈 구축사업 진행
- 외로움, 우울 등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를 위한 마음건강 사업 지원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 건강 프로그램, 소셜다이닝 등
- 1인가구가 놓치기 쉬운 건강 돌봄
- 1인가구를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지원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 소모임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 1인가구들 사이에 사회적관계망 형성

미래와 성장을 지원하는



- 1인브랜딩 지원사업, 강연 프로그램 등
- 1인가구가 성장을 도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 강화

한 눈에 보는 2020년

'1인가구'와 함께하다

전국 최초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현재 한국의 1인가구 비율은 29.3%, 서울은 31%가 넘었습니다. 그 중 강남구는 특히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1인가구가 가진 어려움 중에도 특히 '외로움, 우울감, 소외감' 등을 보완하고,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오픈 공간에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은 1인가구 안전망 사업을 통해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안전'을 책임졌고, 소모임/강연/인브랜드/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1인가구들이 교류를 통해 성장하고,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소외받지 않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강남, 건강하고 행복한 1인가구가 머무르는 강남"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1인가구의 어려움과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살피다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는 '강남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1인가구의 주거/생활/여가/자기계발 트렌드와 불편한점들을 살펴보고, 1인가구 센터가 만들어지면 어떤 프로그램과 공간이 필요할지 연령별·직업별로 조사를 거쳐 분석하였습니다. 1차원적인 공간·서비스 지원을 넘어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선두하다

전국적으로 1인가구의 비율이 늘어가는 것이 커다란 사회적 흐름인만큼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방향'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의 첫 시도는 1인가구 지원 정책방향 수립에 기준이 되었고, 센터의 사업과 공간,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많은 광역/기초자치체의 방문과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STAY.G를 알리다



STAY.G와 함께하는 사람들

1인가구와 강남구 지역사회가 만나다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1인가구 여가문화사업 - 강남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기업과 연계 진행



1인가구와 D'LIVE 강남케이블TV가 만나다



STAY.G를 알리기 위한 활동들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간

KBS <아침이 좋다>에 소개된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D'LIVE 강남케이블TV와 STAY.G의 협약을 통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활력지원 프로그램으로
월 1회 원하는 영화·다큐멘터리 등을 볼 수 있는
VOD 쿠폰을 제공



고시원 거주 1인가구의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키트' 전달



1인가구를 위한 '복날 삼계탕 소셜다이닝' 개최



서울시, IoT 기술을 활용해 최적 환경을 조성한 '식물재배기' 보급
(프로그램 운영시, 1인가구와 함께 샐러드 만들어 먹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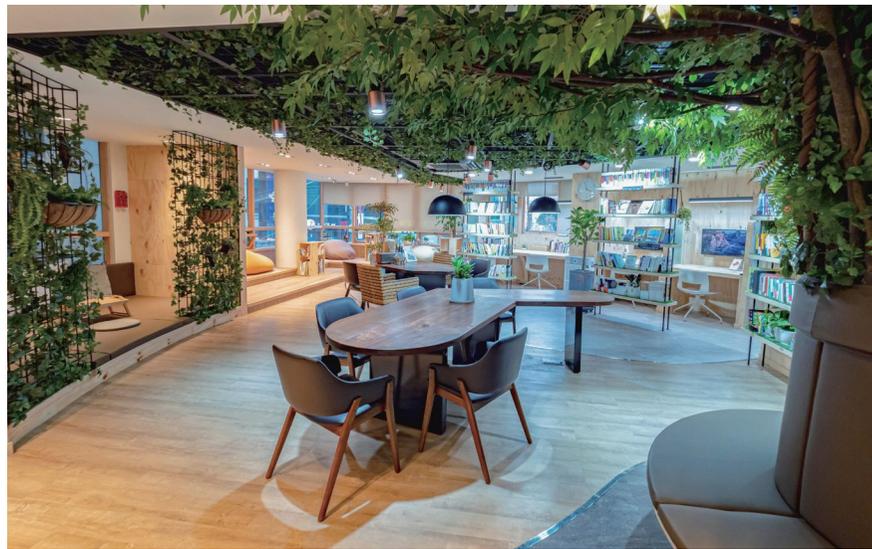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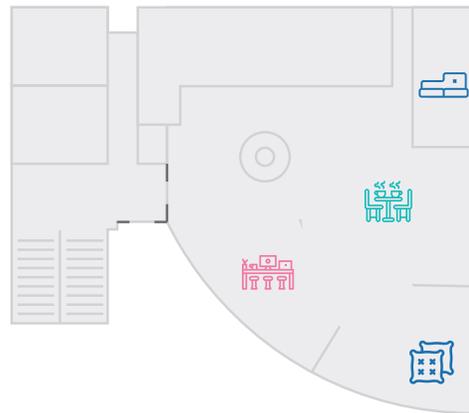


팟캐스트 강남 서초, 동네친구 26화
'STAY.G on STAGE'

STAY.G 공간 소개

1층

바쁜 일상 속 '쉽표' 같은 공간



● 라운지 공간



STAY.G의 1층은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숲처럼 편안한 공간입니다. 바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1인가구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낮잠을 자거나, 퇴근 후에 잠시 둘러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 책 / 미디어



STAY.G에는 책이 가득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책,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책, 잠시 삶에서 멀찍이 떨어져 쉬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 퐁퐁 행복감을 높여줄 만화책까지. 혼자 앉을 수 있게 마련된 미디어석에서는 영화·다큐멘터리 감상도 가능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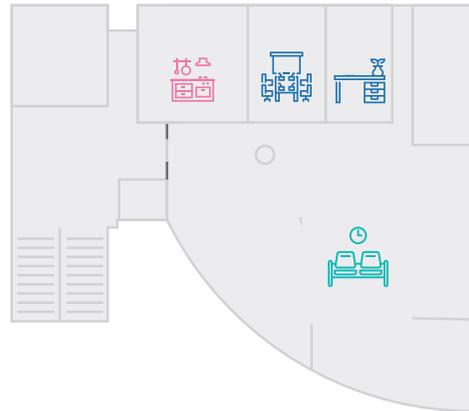
● 매트리스 쉼터 / 마루쉼터



문을 열면 거실 대신 복도가 펼쳐져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1인가구를 위해 STAY.G 1층은 휴식 공간으로 꾸며져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 편안히 기댈 수 있는 매트리스 쉼터, 그리고 기대 앉아 햇살을 맞으며 책을 읽기 딱 좋은 빈백이 놓여진 마루 쉼터.

2층

이야기 소리가 가득한 1인가구를 위한 라운지 '따옴표'



● 라운지 공간



함께 모여 영화를 보고, 강연을 듣는 공간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 모두의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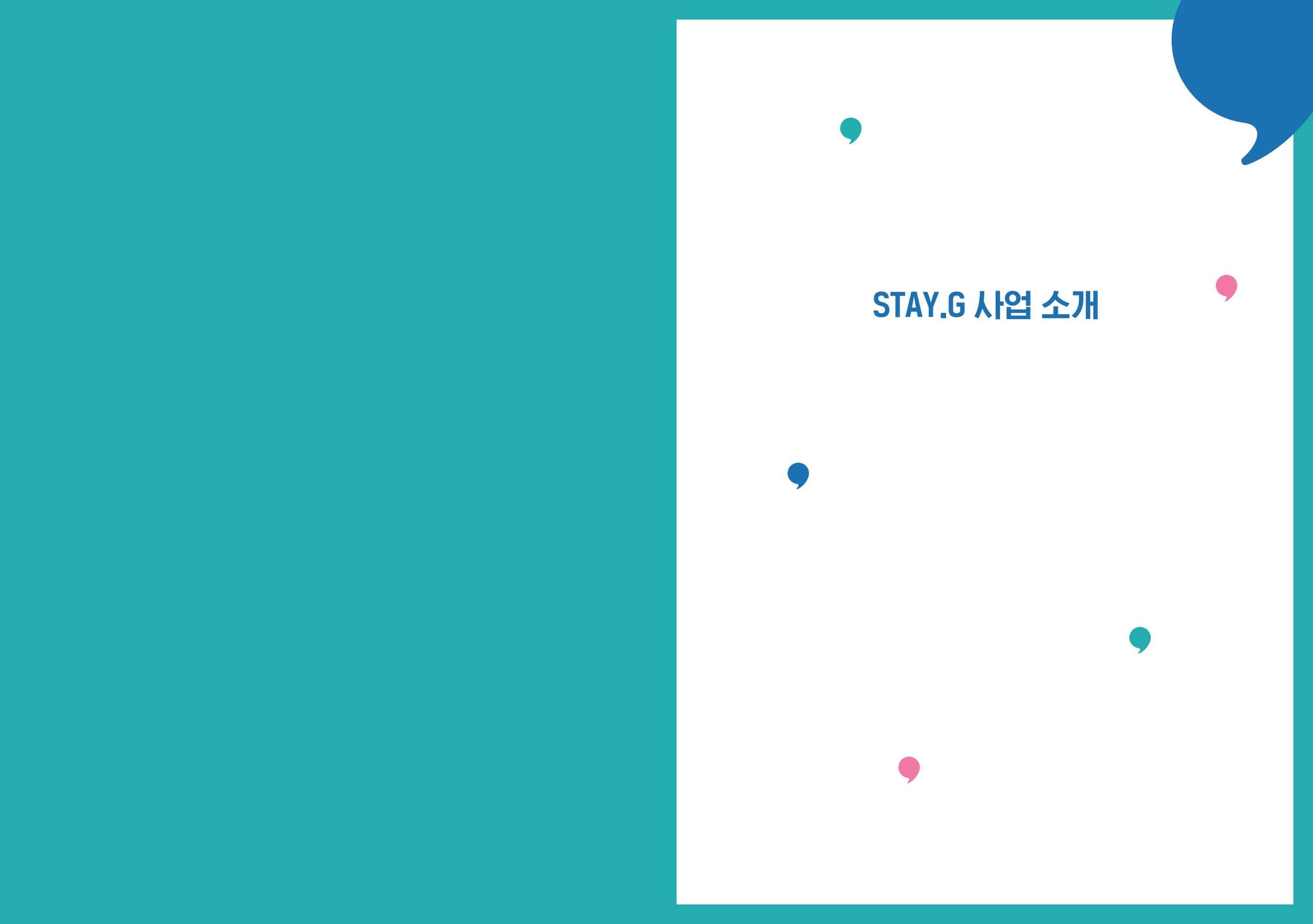


2층에 자리잡은 '모두의 주방'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혼자 밥을 먹거나 배달을 시켜서 드셔도 됩니다. :)
※ 기본 조리도구가 갖춰져있습니다, 사용 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 상담실 / 세미나실



상담실은 2명, 세미나실은 최대 8명까지 둘러 앉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음 커튼이 설치된 상담실에서는 진솔한 이야기를, TV모니터와 화이트보드가 갖춰진 세미나실에서는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The image features a teal background on the left and a white content area on the right. A large blue speech bubble is partially visible in the top right corner. Several smaller speech bubbles in teal, blue, and pink are scattered across the white area. The text 'STAY.G 사업 소개' is centered in the white area.

STAY.G 사업 소개

STAY.G 2020년 사업

1인가구 안전망 구축 사업

스마트안부확인 서비스
TV안부확인 서비스
1인가구 네트워크 구축
1인가구 건강 클래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인가구 소모임 지원사업
건강한 음식과 함께하는 소셜다이닝
강연 및 액티비티 프로그램
홍보 및 브랜딩

1인가구 활력지원

1인가구 특화상담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1인브랜딩 지원 프로그램



1인가구 안전망 구축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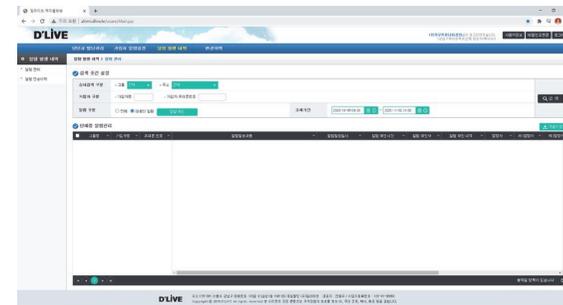
1인가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육체적 불안함을 해소 또는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업입니다.

① 스마트안부확인 서비스 TV안부확인 서비스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스마트홈 구축」

1인가구를 위한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STAY.G는 스마트 문열림센서를 통한 안부확인 서비스와 TV안부확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TV셋톱박스 또는 IoT기기(문열림센서)설치 후
TV 또는 문열림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 하여
3일 이상 사용내역이 없는 가정에게 안부확인 진행 후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이용자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하고 있어요.

똑똑똑, 잘 지내고 계신가요? :)

② 1인가구 네트워크 구축



「강남 1인가구 네트워크」

2020년 강남 1인가구 네트워크 멤버십

| 전체 멤버십 83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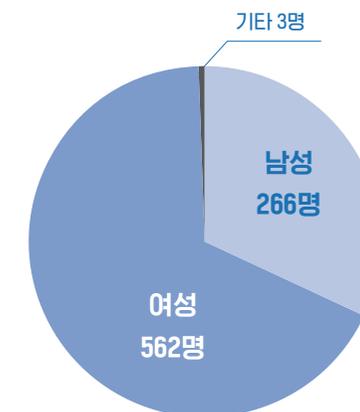
2020년 첫 해에는 인원 목표를 300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프로그램을 하나씩 진행해온 결과 1년 사이에 총 831명이나 되는 멤버십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 멤버십 현황 - 연령



| 멤버십 현황 - 성별



③ 1인가구 건강 클래스

「혼자사는 사람을 위한 건강 클래스」

혼자사는 사람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준비된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 일상을 바꾸는 힘,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1인가구 여성으로 살아가며 스스로 내면의 다양한 힘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내 몸의 대응 가능성을 높이고 확인할 수 있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기방어훈련이 뭔가 궁금했는데, 이렇게나 유익한 내용이었더니! 매우 만족했습니다. 단순히 힘을 사용하는 방법만이 아닌, 여성주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진행이 인상 깊었습니다.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탐색하고 나에게 맞는 나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소리를 질러 상대를 당황시키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며,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에게 특히나 1인 여성가구에게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7월, 자기방어훈련 참가자

▶ 온라인 홈트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1인가구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온라인 홈트레이닝 영상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홈트레이닝을 꾸준히 함께한 참여자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SNS 이벤트를 통해 많은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운동을 가면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는데,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주일여 두 번씩 꼬박꼬박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20년 7월, 온라인 홈트 참가자

▶ 링코어스트레칭



주말 아침에 함께했던 링코어스트레칭은 링을 이용한 마사지와 코어 강화 운동을 합친 운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머무르며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 굳고, 딱딱해진 신체를 깨우고, 함께 건강한 한끼를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시바난다요가



시바난다는 열두 가지 기본 아사나와 동작 사이사이 이완과 호흡법을 함께 수련하는 전통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인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요가입니다.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시바난다요가 수업을 통해 일상 속에서 힘들었던 기억을 잠시 내려놓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에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요가를 하고나니 편안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한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20년 11월, 시바난다요가 참가자



▶ 맨즈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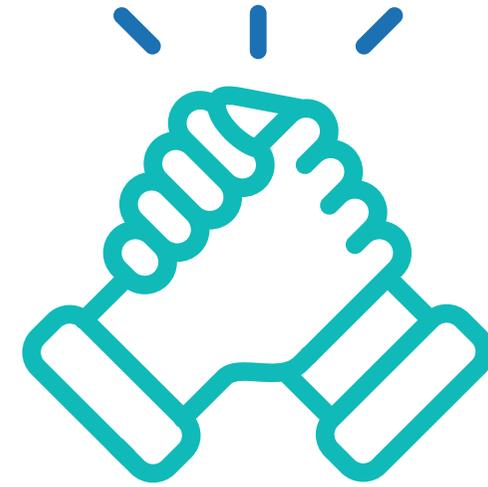


거친 운동을 즐기는 남성들을 위해 유연성을 길러 근골격을 강화하고 근육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요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호흡 조절 연습을 병행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사고방식을 잡아나가기 위한 연습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밸런틱요가



‘밸런틱’은 전신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테라피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이용한 밸런틱요가는 몸 구석구석 굳고 막힌 부위를 풀어내 힘든 하루를 보낸 1인가구들의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인가구의 자기돌봄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1 1인가구 소모임 지원사업



강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중심의 다양한 활동의 소모임 20팀을 선발하여 혼자서 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기계발 및 취미 활동, 지역사회에서 1인가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개설·운영 하도록 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2020년 1인가구 소모임 지원사업

각자공생

STAY.G
강남 1인가구 지원사업

2020년 1인가구 소모임 지원사업 각자공생

사업기간 2020년 5월 1일(금) ~ 8월 31일(화)

지원대상 강남구 거주 1인가구, 새로운 모임 프로젝트를 원하는 3인이상인 팀
(지원 대상 1인가구: 2020년 4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1인가구)
* 동 1인 가구 1명 / 1인 가구 2명 / 1인 가구 3명

모집분야

- 1 | **자율주재 소모임(2팀)**
 - 지역사회에서 1인가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활동
 - 강남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제공
- 2 | **자유주재 소모임(8팀)**
 - 혼자서 하기 어려운 자기계발
 - 함께 하면 더 나은 취미활동
 - * 팀원 1명당: 커피, 차, 우유, 과일, 음료, 간식, 선불카드, 여행상품, 공연티켓 등

STAY.G
강남 1인가구 지원사업

2020년 1인가구 소모임 지원사업 각자공생

지원내용 | 소모임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간 지원
-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1 소모임 활동에 필요한 모임비 (1인당 1인당 10,000원 ~ 1,000,000원)
- 신청비 1인당 10,000원 ~ 1,000,000원 (1인당 1인당 100원)

의무사항 사업종료(8/31)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접수방법 2020년 4월 17일(금) ~ 4월 28일(화) 자정까지
이메일 접수 master@gangnam1.org

STAY.G
강남 1인가구 지원사업

2020년 1인가구 소모임 지원사업

각자공생

STAY.G
강남 1인가구 지원사업

2020년 1인가구 소모임 지원사업 각자공생

사업기간 2020년 9월 1일(화) ~ 12월 10일(목)

지원대상 강남구 거주 1인가구, 새로운 모임 프로젝트를 원하는 3인이상인 팀
(지원 대상 1인가구: 2020년 8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1인가구)
* 동 1인 가구 1명 / 1인 가구 2명 / 1인 가구 3명

접수기간 2020년 8월 31일(화) ~ 9월 13일(일) 23:59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master@gangnam1.org

STAY.G
강남 1인가구 지원사업

2020년 1인가구 소모임 지원사업 각자공생

모집분야

- 1 | **자율주재 소모임(2팀)**
 - 지역사회에서 1인가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활동
 - 강남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제공
 - * 신청비 1인당 10,000원 ~ 1,000,000원 (1인당 1인당 100원)
- 2 | **자유주재 소모임(6팀)**
 - 혼자서 하기 어려운 자기계발활동 (취미, 여행, 운동, 요리 등)
 - 함께 하면 더 나은 취미활동 (영화, 음악, 여행, 요리, 미술 등)
 -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간식, 선불카드, 여행상품, 공연티켓 등)

1 상반기 우수 소모임(2팀)

- 상반기 활동 소모임 활동비 인센티브를 위한 소모임 활동 지원

STAY.G
강남 1인가구 지원사업

2020년 1인가구 소모임 지원사업 각자공생

지원내용 | 소모임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간 지원
-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1 소모임 활동에 필요한 모임비 및 간담비
- 소모임 1인당 10,000원 ~ 1,000,000원 (1인당 1인당 100원)

의무사항 사업종료(11/30) 후 10일 이내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STAY.G
강남 1인가구 지원사업

▶ 상반기 지원 소모임

① 채로로의 강남 뿌시기

- 여성으로서의 안정적인 삶과 건강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기 위한 핵심 가치인 페미니즘과 버거니즘을 지향하는 여성 4인 모임



② 알콩달콩 강아지

- 외롭고 힘든 1인가구에게 삶의 힘이 되어줄 반려견을 사랑하는 모임
- 반려견의 소셜 활동, 친구를 만들고, 사회성을 길러주고 예비 견주에게 입양 전 교육도 시켜주는 취지의 모임



③ 블로거들의 생존신고

- 세상은 넓고 아직 못해본 것도 많은 이 세상에 서로가 서로의 사다리가 되어 다양한 체험을 하는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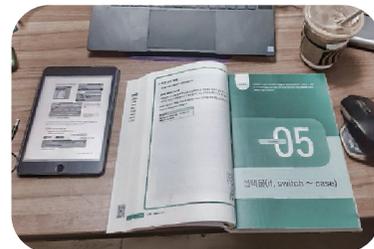
④ 아더스 크루 Others crew

- 사회에서 각자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달리기라는 공통 취미를 통해 모여 같이 달리며 바쁜 삶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공유하는 러닝크루



⑤ 아키벨롭 Archelop

- 게임 개발을 목적으로 한 유니티와 C# 스터디
- 소모임 팀명으로 비영리 목적의 인디 게임 제작 및 배포



⑥ 지심채

- 지심채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문화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고 넓히고, 토론을 통해 생각을 키우는 소모임입니다.



⑦ 4시4철(사시사철)

- 4명의 지기들의 관심사에 대해 공유하고 배워가는 모임
- 사시사철 지기들 이외에도 모집글을 올려 신청을 받고있는 '참여형' 모임
- 메이크업, 꽃꽂이, 와인, 도자기공예에 관심을 갖는 모임
- 서로의 관심사에 공감하고 공유하며 1인가구의 '혼자배우기'를 함께하고자 구성된 참여형 커뮤니티 #원데이클래스 #함께배우기



⑧ 엑셀러들

- 튜터의 잔소리와 함께 엑셀과 친해지는 시간
- 목표는 어딜 가든 엑셀을 할 줄 안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



⑨ 개.취.존중

- 소모임 멤버 모두 강남 1인가구로 살고 있는 개성강한 사람들
- 다양성의 시대 '세상은 넓고 안 해본 건 많다' 상대의 취향을 함께 경험하고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배우며 일주일에 한번 씩 만나 친분을 쌓으며 서로의 신변을 확인해 주는 모임



⑩ BTS BOOK TALK SHARE
더 리딩 콜렉티브 The Reading Collective

- 1인가구, 자기성장에 대한 관심, 다른 분야와의 연결성을 중요시 하지만 '바쁜 라이프'로 지내는 공통점을 가진 소모임
- 이러한 점을 가장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

하반기 지원 소모임

① 따로, 또 같이

- 초보 청년 1인가구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법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강연을 제공하고, 생활노하우를 공유하는 교류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모임입니다.



② 지심채

- 지심채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문화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고 넓히고, 토론을 통해 생각을 키우는 소모임입니다.



③ 에너지 버스

-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좋은 에너지를 서로 나누고 있는 소모임입니다.
- 에너지 충만한 삶을 위해서, 각자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어줍니다!



④ 직장동료

- 취업, 특히 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한 팁과 정보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지 않은 것을 모두에게 열린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 저희의 작은 노력이 외국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이직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⑤ 보드워크 리더스

- 보드워크 리더스는 분절되고 소외가 일상화된 현 사회에서 보드게임을 통해 서로 인부를 묻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모였습니다.
- 또한 복제어를 통해 매 모임 시 다른 주제로 자신이 공유하고 싶은 책을 빌려주고, 서로 감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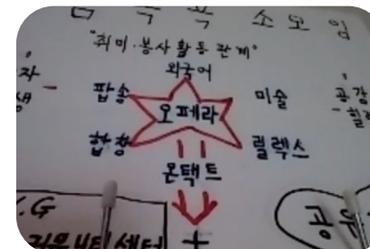
④ 아더스 크루 Others crew

- 각자 바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달리기라는 공통 취미를 통해 모여서 같이 달리며, 다양한 즐거움을 공유하는 러닝크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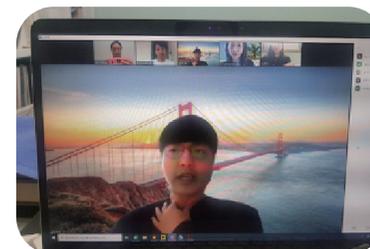
⑦ 꽃한편

- 꽃 하나, 꽃말 하나, 그리고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꽃말에서 비롯된 한 편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전하는 오디오 콘텐츠 제작 커뮤니티입니다.



⑧ 마음목욕

- 취미 및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구성원들이 모여, 고독사 예방 활동 참여목적으로 모였습니다.
-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감성힐링을 공감하는 건강한 소모임입니다.



⑨ BTS BOOK TALK SHARE 더 리딩 콜렉티브 The Reading Collective

- 1인가구, 자기성장에 대한 관심, 다른 분야와의 연결성을 중요시 하지만 '바쁜 라이프'로 지내는 공통점을 가진 소모임
- 이러한 점을 가장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



⑩ PT체조

- PPT제작 스킬을 배워 취업시장 뽐내기!
- 직장인, 창업인, 프리랜서 등의 기획서, 제안서, 카드뉴스 등 자체제작 능력을 기르기 위한 파워포인트 제작 스킬 스터디 모임

② 건강한 음식과 함께하는 소셜다이닝



바쁜 삶 속에서 간단히 때우는 1인가구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같이 만나 함께 밥을 먹기 어려웠지만 온라인에서 만나 교류하며 나를 위한 건강한 한끼를 챙겨보는 자기돌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있어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마침 강남구에 이사오고 얼마 안되어 지원센터가 생겨, 강남구에 살아 행복한 마음이에요. 코로나로 센터 문도 닫고 다들 고생 많으시지만 언젠간 이 모든게 해결되어 센터도 놀러가 볼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년5월, 라이브소셜다이닝 참가자

처음 참가해봤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며 집에 혼자 있을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냉장고도 작아 재료 사고 요리하는게 쉽지 않는데 재료도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어요 ^^ 맛도 있었구요~~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20년9월, 라이브소셜다이닝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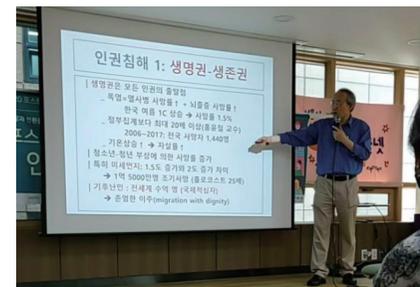


③ 강연 및 액티비티 프로그램



▶ 특화강연

1인가구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삶의 태도, 혼자 살며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방법, 1인가구의 자립을 위한 재테크 등 1인가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나누는 강연 및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인가구가 STAY.G 안에서 성장하고, 치유받고, 용기를 얻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5.6 **혼자 살아보고 싶다면? _ 이선주**
: 혼자 살아가는 1인가구 저자의 책 이야기
(영상콘텐츠)



5.28 **외롭지 않을 권리 _ 황두영**
: <외롭지 않을 권리> 저자 황두영 작가와 함께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북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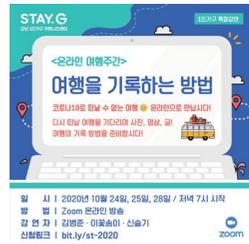
6~7월 **2020 포스트코로나 시리즈(5회)**
: 인권, 환경 등 매 회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워크숍 프로그램



10.16 **흔들리는 서울의 골목길 _ 경신원**
: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다룬 강연



10.24 **여행을 기록하는 방법 _ 김병준·이꽃송이·신슬구**
: 여행작가들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떠나지 즐기 못하는 여행이야기를 들으며
여행의 기록 방법을 공유



10.27 **1인가구를 위한 쉬운 재테크 _ 김짠부**
: 1인가구의 자립, 그 시작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1인가구의 재테크를 도와주는
쉬운 재테크 기본 강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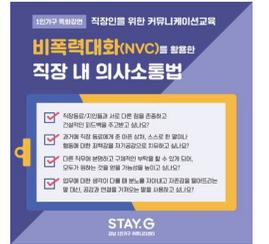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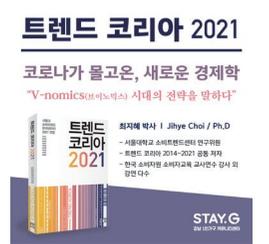
10.30 **좋아서 하는 일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이랑**
: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도 노동으로 기능하며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커뮤니티를 이루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등 저자의 경험 공유

11.5 **내향성을 무기로 성공하는 방법 _ 안현진**
: <월요일이 무섭지 않은 내향인의 기술> 저자와
함께 '내향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룬 강연

11.20 **트렌드코리아2021 _ 최지혜**
: 코로나로 인해 앞당겨진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강연

11.24 **평범한 대학생에서 여행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야기 _ 안시내**
: 평범한 대학생이 여행을 통해 많은 이들이 꿈꾸는
여행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야기

11.1~12.6 **1인가구 딱 맞춤! 취업, 일자리 릴레이 특강
직장인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5회)**
: 비폭력대화(NVC)를 활용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프로그램





1인가구 활력지원

1인가구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① 1인가구 특화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강남 1인가구는 외로움 뿐만 아니라 번아웃 증후군, 상대적 박탈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인가구 특화상담 사업을 통해 1인가구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1인가구 마음건강 워크숍 <Find Me_나를 보다>



이 두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Find Me_나를 보다> 는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워크숍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10만큼 좋은 일이 있을 때 10만큼 기뻐할 수 있는 여유, -10만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딱 -10만큼 아파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유난히 힘들어하는지, 어떤 일을 피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잘 못지내는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지까지 자신을 잘 아는 것만으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인생을 진짜 나의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선생님 열정, 참여자들 적극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20년 6월, 마음건강 워크숍 참가자

과거로 돌아가다보면 부모탓을 하게 되기 쉬운데, 그렇게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또 워크숍 해주세요.

20년 12월, 마음건강 워크숍 참가자



잘난 것 같아 보이기만 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20년 5월, 마음건강 워크숍 참가자



1:1 심리상담 지원사업

여러명이 함께하는 워크숍 형태의 마음건강 프로그램 이외에 개인의 내면을 깊숙히 들여다보고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상담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 강남구내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진행]

- 9월~12월 지원사업에 참여한 STAY.G 멤버에게는 1회의 심리검사와 10회기 개인 상담을 지원



언젠가 상담을 받아보아야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딱히 큰 문제는 없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1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리상담을 받으면 좋을 줄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의 상담이었는데도,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고 상담 시간이 기다려지더군요.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서 일상을 보내는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하나 더 알게 된 것도 좋습니다. 뭔가 본질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은 느낌이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의문을 풀기 위한 실마리들을 찾고, 앞으로 이런 의문들을 계속 숙제처럼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면서 해결해 왔지만, 앞으로는 심리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려 합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구 삼성2동 / 43세 / A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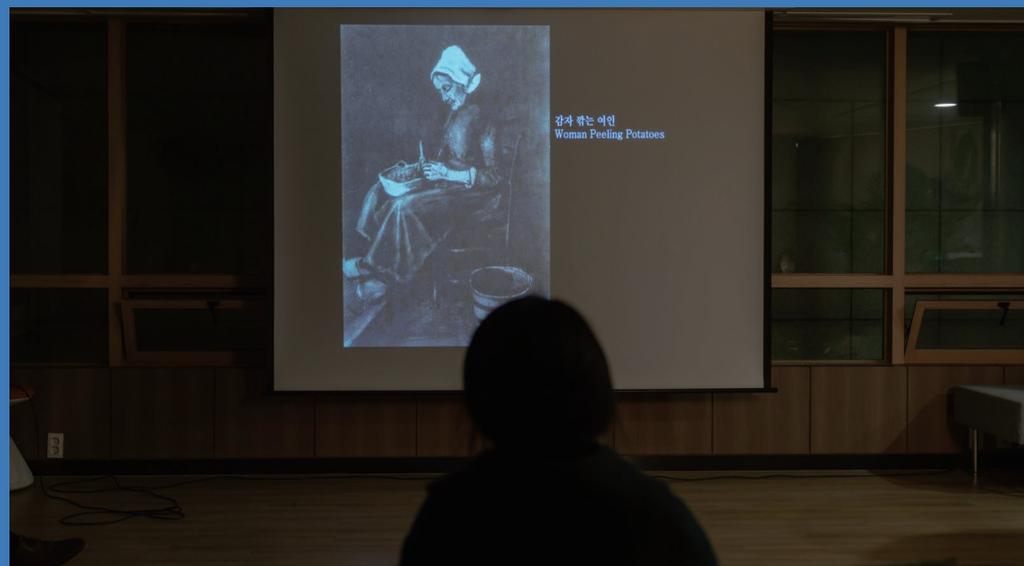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상담 기회가 생겼어요. 첫날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 마음 어디가 이렇게 아픈지 이야기를 하다보니 절로 눈물이 흘렀어요. 저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함께 아파하던 상담사 선생님 덕분에 10회기가 끝나서는 조금은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나 마음의 상처는 있고, 그 상처가 현재의 제 모습에 투영되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사회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지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싶을 때도 있었고, 주위의 소중한 만남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편해하던 때도 있었어요. 10회에 걸친 상담을 받는 동안 상담사님과 함께 저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지금의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결코 제가 잘못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상담을 통해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왜 마음이 불편했는지는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에게 남겨진 무거운 숙제이지만 마음이 살짝 가벼워진 것만으로도 많은 치유가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한걸음 내딛을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 42세 / B씨

②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과는 멀기만한 1인가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STAY.G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온택트' 방식을 활용해 음악 명상 콘서트,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등 새로운 문화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 서유영

로프로 다양한 사람(집)들이 연결된 모습을 통해서 서로 얽혀있는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 전시



비밀엽서 프로젝트 (4~5월)

비밀(익명)의 힘을 빌려 개인적인 고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 인스타그램을 통한 '온라인 전시' 개최



반딧불 콘서트 - 인클래식 (11.10)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캄캄한 공간에 반딧불 조명을 켜고, 바람 나무 풀벌레 소리를 배경으로 클래식 연주를 듣는 공연



조크샵 - 블러디퍼니 (11~12월)

"웃는 데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니만의 이야기를 조크로 풀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진행한 조크 워크숍



반 고흐 음악회 - 유클래식 (12.4)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반 고흐의 그림을 감상하고, 그의 생애와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감각적인 콘서트



음악 영상 콘서트 - 케렌시아 (12.9)
'어른이 될 위한 자장가'
바쁘고 지친 현대인을 위한 고단한 일상 속 마음에 심 한 조각



스탠드업 코미디 - 블러디퍼니 (12.11)
깜깜한 무대 위 딱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1인가구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픈마이크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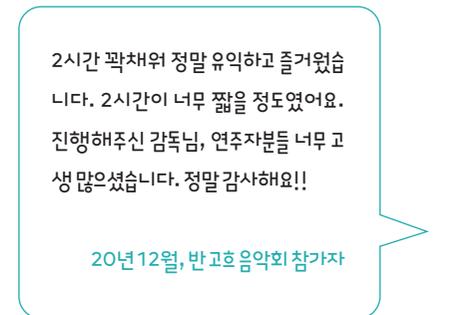


물레 라탄공예 키트 (12월)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강남 1인가구를 위해 만드는 법 영상을 담은 라탄 공예 키트를 전달



시간가는 줄몰랐어요. 명상만으로 모든 고민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동안 두려워서 마주하지 못했던 저를 마주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버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20년 12월, 음악영상콘서트 참가자



2시간 꽉채워 정말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2시간이 너무 짧을 정도였어요. 진행해주신 감독님, 연주자분들 너무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20년 12월, 반고흐음악회 참가자



제가 요즘 상처받고 힘든 시기인데, 다른 분들이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하신 것을 보면 서용기를 얻었어요.

20년 12월, 스탠드업코미디 참가자

③ 1인브랜드 지원 프로그램

1인브랜드 지원사업 <인시대>는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예술가, 강사, 자영업자,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시대>는 자기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중요해진 지금 시대에 적합한 사업이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와의 개별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고, 자기가 가진 콘텐츠와 그 콘텐츠에 맞는 미디어 플랫폼을 결정해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은 일까지 '1인 브랜드'를 위한 전체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1인브랜드 지원사업 <인시대>

<인시대>를 함께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사람, 가고 있던 길을 단단히
다진 사람,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잡은 사람까지.
STAY.G를 통해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PHOTO by. 차경 @chakyung

INTERVIEW by. STAY.G 이시은,
워크앤플레이그룹 김선진 @kimsunjin_worknplay

당신은 '갑'입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기업자문 #노무사

노무법인 갑 대표 | 고갑석



일터에서 항상 함께하는 다이어리와 달력



노무법인 갑, 고갑석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kokapseok>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노무법인 갑의 대표자이다.

노무법인 '갑'의 이름은 제 이름인 고갑석에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의뢰인이 울이 아닌 갑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담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동이 존중받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산업이 변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Q. 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친화력', '도전력'으로 다가서는 사람이다.

사람도 일도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저만의 매력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재능을 갖고 있어요. 외향적인 편이라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에 있어서도 일단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성격이라,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도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의 실용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활발한 액션을 꿈꾼다.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 커뮤니티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강남 내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을 만나고 들어와 그들의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도 전문가로 잘 브랜딩이 되고 싶습니다. STAY.G에서 배운 개념을 기반으로 더 구체적인 브랜드 성장을 위해 그 방법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조직의 구성원에서 조직의 대표자가 되었다.

저는 7년의 경력을 가진 한 명의 구성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노무법인을 설립하고 대표공인노무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노무법인의 비전과 미션을 세우고 성취해가는 중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공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어설픈 모습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진해 간다면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에서의 경험을 통해 열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와 지향점을 어떻게 명확히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자신을 브랜딩하여,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고 함께이구나'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다른 재능을 가진 강사의 열정적인 참여가 저만의 작은 포부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키우는 계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무원 #유튜버 #N잡러 #초등교사 #블로거

공무원 N잡러 | 김민규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N잡하는 공무원, 퇴근맨입니다.

공무원은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먼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거기서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딱 한 걸음만 내딛어봐도 정말 다른 삶이 펼쳐져 있는데 아쉽게도 '안정성'이라는 틀에 묶여있는 공무원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퇴근하고 뭐하지?'라는 가벼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한 게 '퇴근맨'이었어요. 퇴사는 두렵고 퇴근 후에는 무기력해지는 공무원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자기계발과 마인드셋 그리고 실제 수익화 과정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공무원 N잡러, 김민규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rhfahrcorqkd>



Q. 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꾸준함'입니다.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었어요. 그 안에서 발견한 건 그들은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낸다는 거예요. 공무원 N잡의 핵심은 결국 콘텐츠입니다. 그럼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비밀 열쇠가 있을까요? 없죠. 눈치채셨겠지만 기본은 꾸준함이에요.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영상을 만들든 꾸준하게만 할 수 있다면 점점 콘텐츠는 쌓이고, 질은 높아지고,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꾸준함'이에요.



공무원을 선택한 '자본주의 키즈'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영감을 주는 공무원 계의 스티브 잡스를 꿈꾼다.

"오늘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탄탄한 파이프라인과 든든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말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기치 못했던 즐거움, 열정 가득한 사람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자신감은 결국 지속하는 힘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싶은 욕망으로, 영감을 나누고 싶은 에너지로 이어졌죠. 제 꿈을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한적하고 따스한 분위기의 소소한 책방을 운영하며 매일 읽고 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온라인에 먼저 작은 책방을 하나 열었어요. '골목책방' 10년 후 오픈할 오프라인 책방의 초석이랄까요?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책 속에서 만난 인사이트를 정리해 유튜브 채널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변화와 도전을 사랑하게 되었다.

변화와 도전은 저한테는 정말 두려운 단어였어요. 하지만 작지만 소중한 성공의 달콤함을 한 번 맛본 뒤로는 그 단어들이 반갑게 다가왔어요. 텅 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어떤 글을 써야 하지?'하고 고민하던 블로그 왕초보가 지금은 '어떤 글부터 쓸지' 고민하는 글쟁이가 되었으니 스스로도 감개무량합니다.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드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에서 '열정'을 만났다.

열정에 기름을 붓는다는 게 이런 것일까요? STAY.G의 1인브랜드 지원사업은 잔잔하게 타오르던 제 열정에 '영감을 주는 멘토와 끼가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적힌 기름을 퍼부었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조언과 응원, 함께 걷는 이들의 존재와 그들이 주는 자극.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거예요.

누구나 고유한 브랜드로 새롭게 탄생하도록 함께 디자인합니다

#퍼스널브랜딩 #휴먼브랜드 #브랜드저니컨설팅 #디자이너 #전문가를위한전문가

브랜드저니디자이너 | 김선진



컨설팅에서 항상 활용하는 포스트잇과 펜



브랜드저니디자이너,
김선진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worknplaygroup>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브랜드저니디자이너이다.

저에게 브랜드는 개인/팀(조직)의 정체성, 저니는 가장 나은 브랜드가 되어가는 여정을 의미해요. 그 길을 만들어가는 데 디자이너와 같은 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정의해 보았어요. 호기심으로 관찰하고, 조금 더 새롭게 상상하고, 트렌드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감각적으로 아웃풋을 그려내는 전문가. 실제로 제가 개인 컨설팅 작업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Q. 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때론 설록홍즈, 때론 곤도마리에를 넘나든다.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좋아해요. 회사생활을 할 때도 임원분들이 가끔 저를 불러 "000 이 사람에게 대한 네 생각은 어떨니?" 물어보시곤 했죠. 14년간을 기업교육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 명강사 등에 대한 휴먼데이터가 꽤나 쌓인 것 같기도 해요. 제 머릿속은 항상 정리-분류-재정렬이 빠르게 돌아가는 편이어서 지금의 컨설팅에 큰 강점으로 쓰이고 있어요. 특징이라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머릿속을 정리하고 위안을 얻어서 돌아가곤 합니다.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브랜드저니디자이너만의 매거진, 책, 살롱을 꿈꾼다.

컨설팅을 시작한 지 3개월에 접어들고 있어요. 저와 제 고객들이 성과를 내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항상 상상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결과를 내고 싶더라고요. 컨설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제가 만난 브랜드를 웹진으로, 먼저 개척해나간 브랜드를 분석해서 책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기대고, 교류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을 차차 만들어나가고 싶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조용한 샘물'에서 '바다로 흐르는 세찬 물길'로 변화하고 있다.

항상 변화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최근 3년간 퇴사와 함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특별한 규칙이 없는 노마드의 삶을 살아봤어요. 홀로 있거나 마음을 보는 시간이 많아진 저는 마치 고요한 산속의 조용한 샘물 같았죠. 그 시간 이후, 삶의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저는 작은 물길이 바다로 흐르도록 하는 강물, 물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폭과 깊이를 유연성 있게 아우르고,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강하고 빠르게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잘 흐르도록 만드는 사람으로 지금도 변화하는 중이에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에서 기다리던 사람과 계기를 만났다.

개인 컨설팅을 시작한 직후의 시점에 만난 것이 저에겐 행운이에요. STAY.G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저에겐 선배이자 롤모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노하우를 듣는 기회 자체가 특별했어요(때론 참여자분들조차도요). STAY.G를 만나고 눈에 보이는 실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브랜드저니컨설팅>이라는 이름도, 인스타그램 계정도, 제가 쓰고 있는 책의 프롤로그와 샘플 챕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인터뷰 작업에도 참여하게 되어 너무나 설렘니다.

음악과 사람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클래식텔러입니다

#클래식음악DJ #비폭력대화 #프리콘서트토크 #플룻티스트 #마음통역사

클래식텔러 | 김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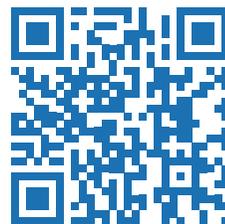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보면?

나는 클래식을 이야기하는 텔러 김수정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음악 이야기를 쉽게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클래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클래식텔러'라고 이름 붙였어요. 저의 미션은 전시회 도슨트처럼, 영화 프리뷰처럼, 클래식 공연을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클래식은 비하인드 스토리, 역사, 작곡가 이야기 등을 알고 들으면 훨씬 재미있거든요. 그러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가 Pre-Concert Talk(프리콘서트토크)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해설을 미리 알고 음악을 듣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악보 위에 작곡가의 말을 덧칠하는 중



클래식텔러, 김수정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classicteller>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플룻티스트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클래식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나라 사람으로부터 고전음악을 배운 플룻티스트예요. 시작은 한국선생님이었지만, 뉴질랜드 유학시절 폴란드선생님, 이탈리아선생님 독일교수님 그리고 독일에선 프랑스로수님과 터키교수님께 음악과 관련된 미술, 역사, 인문학, 사람 그리고 문화를 배웠어요. 그 덕분에 어떤 예술가들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클래식음악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죠. 저는 클래식음악은 하나의 오래된 이야기이고, 클래식연주자들은 작곡가의 이야기를 악기에 담아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라고 생각해요. 음악에 담긴 스토리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가 더욱 입체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음악이 가진 힘을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독일 할머니께 용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 연주를 듣고 예전 추억이 생각났다고, 제 음악이 위로되었다면서요. 그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음악치료센터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음악'과 '치유' 사이의 연결고리에 관한 관심이 깊어졌어요. 작년에 활동했던 오케스트라에서는 소년원 또는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찾아가는 연주가 많았는데, 그 아이들의 환경이 조금만 나았다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비폭력대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서로 공감하는 데에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는 따뜻한 호기심만 있을 뿐이죠. 어쩌면 그래서 말이 없는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울기도 하고 위로도 받나 봐요. 저는 앞으로도 비폭력 대화와 음악을 병행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기다리는 사람에서 찾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제 연주만 불러주기를 기다렸어요. 세상 몰정 모르던 음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홍보하며 제 가치를 높여가는 기획자이자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움직이는 멀티플레이어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만, 한가지씩 실현해보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STAY.6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6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음악계는 아니지만 1인브랜딩을 구축하고 처음 계획했던 일들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허황되어 보이기만 했던 저의 꿈도 실현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저의 잠재고객을 늘린다는 마음으로 저와 취향이 비슷한 구독자, 팔로워를 찾는 데 집중했어요. 지난달부터는 SNS를 통한 제 프로그램 신청 문의가 오는 등 조금씩 브랜딩의 결과나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랑과 존귀함을 향과 예술로 나타내는 퍼퓸 아티스트

#향기 #예술 #존귀함 #사랑 #융합

퍼퓸 아티스트 | J.LUR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보석이 된 퍼퓸 크리스탈



퍼퓸 아티스트, J.LUR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inpock.co.kr/kassialucy>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향과 다양한 예술을 융합하는 '퍼퓸 아티스트'다.

저는 '퍼퓸 아티스트'로써, 향과 예술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함'이라는 가치를 선물하는 작품, 프로그램, 전시 등을 창조해요. 글과 그림을 그리면 그 글과 그림만의 향이 나는 퍼퓸 페인팅 프로그램, 사랑하는 사람에게 10년 후에 하고 싶은 말과 그림을 선물하면 그 향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그 날의 사랑을 간직하는 퍼퓸 타임캡슐 워크숍, 향과 촉감을 융합한 퍼퓸 페이스트 워크숍, 향을 처방하는 퍼퓸 피마시 전시회 등을 선보였어요. DDP, 신세계, 서울어린이대공원, COEX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 꾸준히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모두가 자기 존재의 빛남을 알고 나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저는 새롭고 재미있고 행복을 주는 것을 사랑해요.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것들이 사랑과 존귀함을 선사하는 것어요. 한국은 자살률 1위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는 일면과 우울증을 유발 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죠. 저 또한 사회의 기대나 성취를 위해서만 살았던 경험, 우울증, 자존감의 변화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존재 자체로 귀하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단 하나의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모두가 존재의 빛남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고, 제 작업을 통해 그 메시지를 말해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향과 예술로 사람들을 행복하고 자유하게 하는 퍼퓸아트랜드를 만들고 싶다.

동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현실은 저에겐 비참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 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을 타인에게 나눌 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퍼퓸 아티스트로 계속 사랑과 존귀함을 말하는 작품, 프로그램,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에요.

해외진출 /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

향과 예술을 통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유일무이한 활동들을 이어나 가려 해요.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허상이었던 디즈니랜드가 아닌 퍼퓸아트랜드를 통해 제가 받은 사랑을 선물하고 싶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빛나고 단단한 퍼퓸 아티스트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어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돌이 연단되어 보석이 되듯 더 단단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실력과 영성의 중요함을 더 크게 느끼죠. 또한 브랜딩을 통해 더 단단한 퍼퓸 아티스트로 변화하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를 통해 브랜딩과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랜딩과 마케팅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스스로 브랜딩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콘텐츠를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앞으로 내가 브랜딩하고 마케팅 하는 것들의 기초적인 베이스를 다지게 된 좋은 계기였어요.

행복한 재테크 그 매력에 빠져들게 만드는 저는 김잔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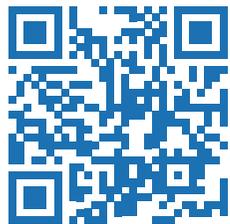
#저축 #재테크 #가계부 #잔순이 #머니메이트

머니메이트 김잔부 | 김지은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보신다면?

나는 덜 쓰고 더 버는 삶을 전하는 머니메이트 김잔부입니다.

잔테크스러운 '덜 쓰고'와 부자를 꿈꾸는 '더 벌고'를 합쳤고, 러닝메이트처럼 이 모든 레이스를 함께 뛰겠다는 의미로 '머니메이트'라는 표현을 만들었어요. 저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결국 '행복한 재테크'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재테크는 재미있고 행복한 과정이고, 나다움을 찾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잔부 재테크, 김지은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inpock.co.kr/kimjanboo>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비꼬기'를 잘 활용한 '잔순이'캐릭터이다.

일명 '비꼬기'를 잘 활용하는 게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소비를 자랑하는 게 만연한 SNS에서 저는 '잔순이'라는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조금은 공상맞아 보일 수 있는 '잔순이'라는 단어를 20대에 맞게 풀어내거든요. 명품 언박싱 대신 가계부 언박싱, 잠드는 ASMR 대신 사지 말라고 속삭이는 ASMR, 돈 잘 모으는 MBTI 유형, 잔순이의 잔소리 랩 등등 2030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에 김잔부라는 사람의 색깔을 묻혀 영상을 찍습니다. 재테크, 잔테크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재테크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김잔부만의 책, 잔부툰, 컨설팅, 프로그램을 꿈꾼다.

현재는 재테크 유튜버이지만,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잔테크 책 작가, 20대 여성의 재테크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은 잔부툰, 가계부 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해주는 가계부 컨설팅, 그리고 나만의 돈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재테크를 알려주고 싶어요.



김잔부 트레이드마크인 트레이닝북, 계산기, 통장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돈을 모을 때도 항상 원금보장부터 찾는 사람이었어요. 돈 모으는 것이 행복한 사람에게 '고정 수입'이 꿈인다는 것은 사망선고와도 같다는 것 아시죠? 안정성이 사라졌어요. 이직을 준비하냐고요? 아뇨.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다는 저 자신을 마케팅하고 저만의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어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죠. 잔테크로 다져진 탄탄한 라이프스타일. 잔순이의 무적 아이템들을 들고 거침없이 나아가고 싶어요. 전 오늘도 회사가 아닌 세상으로 출근합니다.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를 통해 틀을 깨고, '내 일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다.

책이나 영상에서 보고 들었던 정보들도 있었죠. 하지만 STAY.G에는 '내 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내 주제, 내 이야기로만 가득했던 삶에 타인의 이야기와 과정을 세세하게 보고 듣는 기회가 되었어요. 덕분에 제가 생각했던 '일'이라는 틀을 벗고, '좋아하는 일'을 '진짜 일'로 바꿔나가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많은 용기와 위로를 받았죠. 사실 과정 중 재취업을 시도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막바지가 될 수록 제 일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더이상 '안정성'에 제 젊음을 쓰고 싶지 않아졌어요. 1인브랜딩 지원사업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행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찾는 새로운 경험이 궁금하다면

#경험주의자 #작가 #여행가 #인솔자 #여행디자이너

여행스토리텔러 | 나소영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보다면?

나는 자신만의 답을 찾도록 돕는 여행스토리텔러이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세계를 누비며 차별화된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하며, 손님들의 안전과 즐거움을 책임지는 인솔자로 7년의 시간을 지내왔어요. 코로나 19로 하늘 문이 닫히고, 그것을 계기로 지금은 제 경험과 여행스토리를 글과 이야기로 풀어내는 중이에요. 누구나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여행스토리와 방법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아 '여행스토리텔러'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스토리텔러, 나소영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iamsoyoung>

Q. 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산을 오르며 해답을 찾는 산쟁이'이다.

직장생활 6년 차에 처음 공황장애가 왔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느꼈던 순간, 병원보다는 산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산을 오르며 고민과 잡다한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니 제 안의 불안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죠. 우리의 인생도 등산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정은 숨이 차지만, 정상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찾는 과정일 수 있는 여행의 이야기와 방법을 전하고 싶어요.



늘 나와 함께 여행하는 카메라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행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도 결국 끝이 나겠지만 앞으로 '자연과 함께 사는 방법,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잃었던 여행의 행복을 되찾을 것이지만 여행의 방식은 분명 이전과 달라질 거라 예상해요. 우리의 여행도 바뀌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여행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여행의 자세와 여행의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활동도 하고 싶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의 세상은 조직 생활에서 1인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름 조직 생활을 잘 하던 중, 코로나19로 1인기업의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1인 창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회사와 헤어진다면 '나'라는 상품을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을지를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되었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흐름에 맞게 1인기업, 1인브랜드 시대를 알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해요.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자신을 계발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 중이에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STAY.G를 만나 저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만약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알지 못했다면, 하루하루 코로나로 상황이 나빠지는 여행업을 바라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가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브랜딩을 한다는 말 또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곳에서 1인브랜딩을 멋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을 만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해요.

스포츠로 만든 더 나은 세상

#스포츠외교관 #스포츠칼럼니스트 #스포츠마케팅 #뉴스포츠

스포츠 노마드 S | 남선영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보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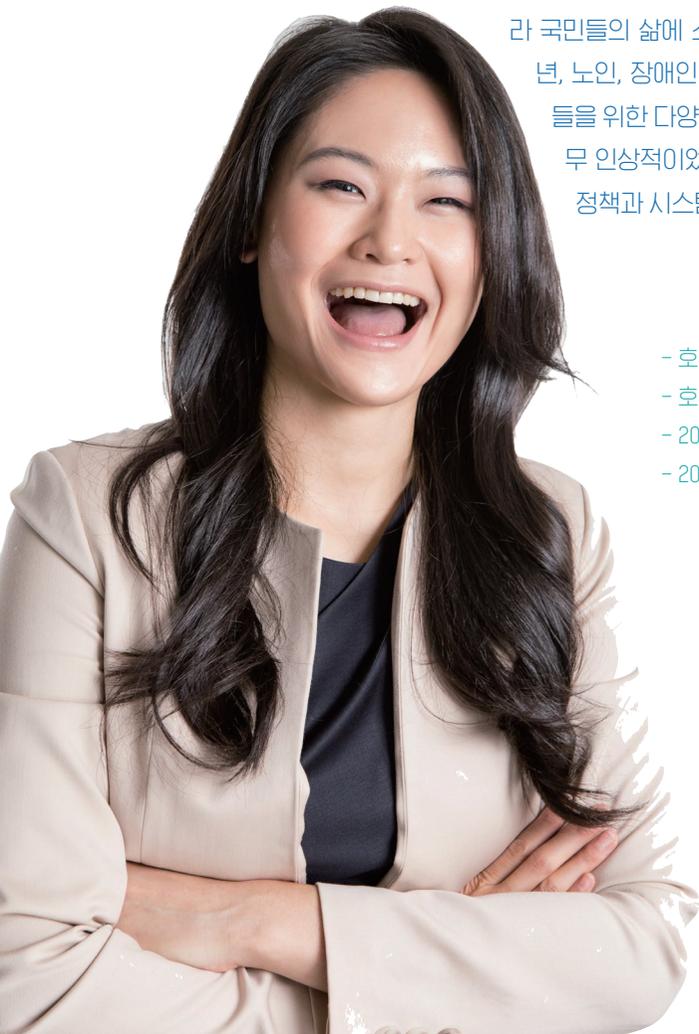
나는 스포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노마드 S’는 스포츠 행정, 스포츠 외교를 통해 건강한 사회 연대를 이끌어낸 사례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스포츠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저만의 브랜드입니다. 미국, 호주, 노르웨이 등 스포츠 및 복지 선진국의 스포츠 선수와의 만남이나 업무 현장 경험을 통해 그 나라 국민들의 삶에 스포츠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걸 봤어요. 특히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편견 없는 시선, 배리어프리 체육 시설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이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도 모두를 위한 체육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어요.

- 호주 아이스하키 클럽 Melbourne Ice 마케팅 인턴
- 호주 주정부 야구협회 Baseball Victoria 경영 인턴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종목 팀호스트
-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아나운서



스포츠 노마드S, 남선영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sportsnomads.modoo.at>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알파걸입니다.

지금까지 교환학생, 인턴, 여행을 통해 운이 좋게도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어요. 세상은 비슷한 듯 서로 달랐고, 다른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설레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일이었죠. 다행히, 도전을 즐기는 저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 금방 스며들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당차게 도전하는 알파걸!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스포츠 국제 대회 실무 현장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해줬죠. 지금까지도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참여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AD card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호주와 한국의 스포츠를 이어주는 스포츠 행정가를 꿈꿉니다.

현재는 호주정부 체육협회에 마케팅분야 취업했고, 호주 대학원의 스포츠 경영 분야 진학을 앞둔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출발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갈 예정이에요. 생활 체육,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어있는 호주의 스포츠 환경에서 체육 분야 정책과 시스템을 배우고, 관련한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스포츠 정책 및 시스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 미래에 호주와 한국 스포츠 분야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스포츠 외교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필러보고 만져만 보던 ‘스포츠’라는 세상에 들어가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가장 큰 저의 관심사예요. 현재의 우리사회는 구성원 간의 분열이나, 타인에 대한 관용 없는 시선이 만연하죠. 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힘을 가진 콘텐츠를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던 중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다양한 인종, 국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스포츠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우러지는 걸 보며 ‘스포츠의 힘’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스포츠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 콘텐츠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스포츠 분야에 도전해왔어요. 그 노력이 모여 호주 정부 스포츠협회 취업으로 이어졌어요. 드디어 전문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거죠.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를 만나 정처 없이 떠다니던 뗏목에서 힘차게 항해하는 함선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의 저는 정처 없이 떠다니던 뗏목과 같았어요.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을 추상적으로만 그려왔지 명확한 커리어 목표가 없었거든요. 프로젝트 기간 내내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스포츠 칼럼니스트, 스포츠 행정 & 외교 전문가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호주의 생활 체육 체험기,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해외 스포츠선진국 사례를 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해서 저처럼 국내 스포츠 산업에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아카이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깡 있는 딸들을 대신하여

#후레쉬빌 #경영자 #조력자 #마케터 #생존

외식 2세 경영자 | 박시현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깡찬' 경영자, 깡나미입니다. (깡나미 : 후레쉬빌 마스코트의 이름)

<피드백>이라는 책에서 경영자란 '자신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기업 회장부터 작은 매장의 파트타임 직원까지 '자신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경영자인 거죠. 저는 1년 전 아버지가 약 20년간 운영해오신 외식업체에 '온라인마케팅' 담당자로 입사했어요.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후레쉬빌을 '온라인'에서 알리고 성과를 올려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저도 후레쉬빌의 '경영자'가 되었어요. 마케팅도 경영학도 배워본 적은 없지만 뭔가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도전하는 깡찬 '경영자'입니다.



후레쉬빌의 외식 2세 경영자, 박시현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mercigod0422>



떼어 놓을 수 없는 깡나미의 필수품 플래너와 카드목걸이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열정을 지지하는 딸입니다.

기업을 물려받기 싫어하던 제가 입사를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입사할 무렵 아버지는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사업의 '온라인' 전환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퇴근 후 가득 풍기는 '음식냄새'도, 초·중고 졸업식도 함께하지 못했던 '근무환경'도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졸업사진 속 아버지의 빈 자리'보다 그 긴 시간 동안 열정과 사랑을 담아 매장을 운영해오신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런 아버지의 열정이 담긴 매장을 더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2세 경영자의 강점은 1세대 경영자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반짝이는 마음인 것 같아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삼성역에 자리 잡은 후레쉬빌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확장 시켜 나갈 것입니다.

후레쉬빌은 2002년 생과일주스 전문점으로 시작했어요. 그 후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어 삼성역 직장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약 20년간 수많은 메뉴를 개발해왔죠. 현재 후레쉬빌은 주메뉴는 경양식이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식 등 다양성을 갖춘 '메뉴편집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후레쉬빌에서 먹는 점심, 저녁식사를 통해 '일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맛있는 위로'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19년간 해오신 업의 본질, 사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후레쉬빌이 '평택휴게소'에 새로 입점하게 되었어요. 인근 직장인의 비율이 높았던 본 매장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방문하는 평택휴게소의 '후레쉬빌 2.0'에서도 19년간 실천해 온 '진정성', '지속성', '꾸준함'을 담은 후레쉬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한계를 정하는 사람'에서 '한계를 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편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더 친화된 사람이죠. 그런데 스스로를 '자신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 '경영자'로 정의를 하고 나서부터는 한계를 자꾸만 뛰어넘게 되는 것 같아요. 후레쉬빌 직원으로서 고객에게 한 번 더 말을 걸게 되고, 동종업계의 선배, 멘토, 선생님들께 배우고 싶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물어보게 되고, 온라인마케팅 담당자로서 귀찮아하던 온라인채널 중심의 소통과 업무를 계속 연구하고 골몰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나요? 저는 저를 새롭게 정의함으로 인해 지금은 더이상 한계를 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미디어에는 각각에 맞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인시대>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소비자와 각각의 플랫폼을 통해 소통해야 할지 감이 잡혔어요. 또한, 함께 수강하는 팀원분들이 운영하는 계정을 살펴보면서 각자 자신의 개성을 담아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STAY.G 덕분에 열심히 보고, 배우고, 적용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러닝과 패션을 즐길 줄 아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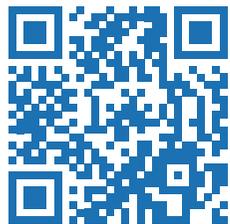
#러닝패션 #인플루언서 #달리기 #러닝크루 #패션마케팅

러닝하는 남자 | 박현재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보다면?

나는 좋아하는 옷을 입고 러닝하는 남자, 박현재입니다.

처음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달리를 시작했어요. 목표가 뚜렷할 때 앞으로 달려나가는 추진력이 좋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던 달리가 전역 후 러닝크루를 운영하는 등 이어졌고, 지금은 달리를 취미로 한지는 벌써 10년이 됐죠. 그러다가 패션 멀티샵 온라인 MD 일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러닝패션'에 눈이 갔어요. 관심이 깊어가다가 결국 지금은 달리에 대해 공부중이고, 패션 마케팅 석사과정을 밟으며 전문성을 높이려고 하는 중이죠. 워낙 오랜 시간을 좋아하는 옷을 입고, 편하고 예쁜 러닝화를 신고 달리다보니 '좋아하는 옷을 입고 러닝하는 남자'라는 저만의 브랜드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 달리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러닝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한 동기부여가로 노력중입니다.



러닝하는 남자, 박현재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present_kary



10년간 달려온 기록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낙살 좋은 사람입니다.

혼자 달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느끼는 러닝의 매력은 '같이' 달리는 거예요. 혼자 달릴 때보다 훨씬 많이 달릴 수 있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끈끈함이 좋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낙살 좋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친화력이 제 강점이다 보니 러닝크루 안에서도 사람들을 편안하게 녹아들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었죠.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앞으로도 꼭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신발을 신고 달릴 생각입니다.

제 SNS를 보는 사람들에게 '아, 달리고 싶다' '달리는 것도 재미있어 보인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달리는 모습, 즐겁게 달릴 수 있는 러닝 루트, 러닝 패션 등의 정보를 모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와 콜라보를 통해 러닝 모델 또는 러닝 강연 등을 진행해보고 싶죠. 그러기 위해 패션마케팅 관련 학위와 러닝과 운동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에너지를 한 길로 모으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일을 일단 경험해보려고 했어요. 덕분에 남들보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하고, 또 어떤 일은 정말 안 맞는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죠. 그 대신 에너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었기 때문에 하나의 업을 진지하게 파고들지는 못했었어요. 지금은 러닝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러너로서, 저만의 색깔을 칠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에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에서 내 안의 길을 찾았습니다.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기초가 중요하다. 병을 정복하려면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해요. 제가 볼 때는 퍼스널 브랜딩도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숫자에 연연해서 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쫓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STAY.G의 <1인시대> 과정은 결국 제 안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줬어요. 평소 제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지 않다 보니 저러는 브랜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살피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 꺼내놓고 피드백 받고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경험이 개인적으로 새로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머릿속에 있던 컨셉도 밖으로 나와 더 뽕족해졌고요. 인스타그램의 경우 주변에서 피드의 컨셉이 다듬어져서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팔로우나 좋아요 수 등도 이전보다 반응이 좋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열정을 쏟고 노력해야 할지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나만의 젤리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기발랄 활동가

#상품기획자 #리빙MD #크리에이터 #재기발랄 #활동가

재기발랄 크리에이터 | 설진영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사람과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삶을 사랑하는 크리에이터 설진영이다.

저는 항상 사람과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담은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해오고 있죠. 리빙MD로 커리어를 쌓아왔고, 지금은 티 브랜드 SEE TEA를 런칭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상품을 기획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삶을 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상품을 만들어, “좋은 건 함께!”라는 motto처럼 많은 사람의 일상이 보다 윤택해지기를 바라요.



재기발랄 크리에이터, 설진영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seetea>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상상하고 그것을 구현하는데 열정이 넘친다.

얼마전에 MBTI를 해봤는데,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가 나왔어요. 관심 있는 것, 좋아하는 것도 많고 상상력도 풍부해요. 관심 있는 일은 수행해 내는 능력과 열정이 있죠. 누군가 MD는 ‘뒤틀지 다 한다’의 줄임말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리빙MD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라이프스타일에 관련 있는 마케팅, 수입 물류까지 꽤 방대한 업무를 신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사람과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참 많구나’ 확인할 수 있었죠.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사람들의 ‘즐겁고 발랄한 일상’을 위한 제품을 기획할 예정이다.

사람들이 윤택하고 재기발랄한 일상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싶어요.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변화를 시도해 볼 예정이에요. 우선 현재 회사에서 진행 중인 SEE TEA의 첫 번째 상품, ‘룰루푸룬 푸룬티&푸룬텀킨티’의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홍보할 예정이며, 개인적인 활동도 확대하려 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점점 더 방향성이 명확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모습은 산 하나를 넘고 되돌아봤을 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산을 넘는 중이라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은 잃지 않으려고 해요. 최근 재밌게 본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젤리가 생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젤리를 남기고 싶지?”를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남긴 젤리들은 예쁜이든 못난이든 웃고 있는 젤리였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드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를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에 동기부여를 받았다.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님의 강의를 인상 깊었어요. 지름길을 찾기보단, 실천하는 하루 하루로 블로그 전문가, 그리고 더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부단히 실천하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 여러분의 각양각색의 색깔이 재밌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SEETEА 첫 제품, 룰루푸룬

안개처럼 흐릿한 인생길을 함께 걷는 마인드 코치

#마인드코치 #라이프코치 #심리학 #코칭

마인드 코치 '그대로' | 성현정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보신다면?

나는 나만의 일상을 만드는 코치입니다.

누구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아가요. 마인드 코치란 열심히 살아가다 문득 그 질문들이 쌓여 나를 삼킬 때,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해주는 사람이에요. 진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유튜브나 책을 열심히 뒤졌는데도 답을 찾지 못한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죠. 모든 사람은 주변 사람의 기대나 미디어의 영향에서 벗어나 '나다운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자기만의 길을 따라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마인드 코치의 거울



마인드 코치 '그대로', 성현정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youtu.be/TXsGSoErr0M>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손 붙잡고 함께 뛰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걸 심플하게 정리하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코칭 고객의 복잡한 상황, 내용, 두서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핵심만 짚어서 정리해서 보여줘요. 그렇게 영켜있던 마음속 응어리를 심플하게 정리해서 바라보면 일단 한결 편안해하시거든요. 가벼워 보이게 문제를 정리해두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다음부터는 같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단계예요. '자, 해보세요'가 아니라 같이 손 붙잡은 마음으로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으시거든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네트워킹 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나답게 살고 싶어서 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1인가구'라는 키워드에 집중해 강의, 코칭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며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하루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네트워킹 장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어요. 1인가구, 페미니즘, 바른 먹거리, 취미생활, 스테디, 독서모임 등 다양한 주제를 잡아 네트워킹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없어져도,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했던 주제가 사라져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지속해서 그 모임을 이어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모임을 설계하고 싶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전에는 무작정 앞으로 달렸는데, 지금은 '방향'을 잡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이든 돼야겠다는 마음에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눈 감고 달리다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 세상이 멈추면서 저도 숨을 고르며 주위를 쳐다볼 시간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처음으로 그러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고민해 봤어요. 그렇게 지금은 제가 원하는 '방향'을 잡아, 눈을 크게 뜨고 뚜벅뚜벅 걸어보는 중입니다.

Q. 마지막으로! STAY.6에서 진행한 1인브랜드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6와 함께하면서 생각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가공하고 보여줄 것인지를 지금까지는 제 관점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 과정을 통해 타인의 관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저라는 사람, 저만의 퍼스널브랜드를 바라보니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가 더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요가하고 글 써요

#작가 #요가 #내향성 #글쓰기 #명상

요가하는 글쟁이 | 안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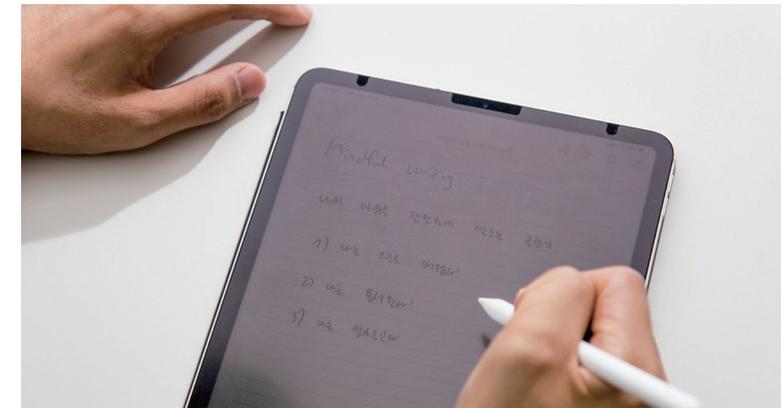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보다면?

나는 요가하는 글쟁이입니다.

사람마다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래퍼는 랩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운동선수는 자신만의 퍼포먼스로 세상과 소통하겠죠. 저에게는 글이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예요. 저는 글을 씀으로써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정리하고 세상에 메시지를 띄워요. 요가는 제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된 체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요가를 수련하고 있기에, 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요가하는 글쟁이'인 것 같아요. 요가하는 글쟁이로서 저는 제가 느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담담하게 정리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요가하는 글쟁이, 안현진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introvert_scott



아이패드로 준비하는 명상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글쓰기'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내향인이예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내향성으로 인해 고민하지도 않고, 내향성으로 인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잘 알고 있기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을 다치지 않아요. 내향성과 단단한 마음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강연을 나누고 있기도 해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앞으로 '요가'와 '글쓰기' 두 가지 일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우선 계속해서 책을 출간할 예정이에요.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집필하려고 해요. 그다음으로는 요가와 명상의 긍정적인 면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이를 위해 현재 요가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어요. 야외에서 하는 요가의 매력을 나누고 싶어서 '야외요가 클래스', 그리고 제가 잘 소통할 수 있는 '글'이라는 도구를 명상과 연결지은 '글쓰기 명상'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큰 호수 같은 사람입니다.

호수는 때때로 물결이 출렁이더라도 곧 다시 잔잔해져요. 저는 그런 호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향하는 바는 물결의 출렁임이 갈수록 적어지는 그런 호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보다 1CM 더 성장하고, 마음이 1% 더 단단해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드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인시대>에 참여하면서 험난한 세상에 홀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힘이 되기도 했고, 위로가 되기도 했죠. 1인, 즉 나 혼자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꾸준히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보이지 않는 차별을 보이게 한다면

#동료시민 #N개의공론장 #찬찬아 #청년공동체 #성장

콘텐츠 크리에이터 '찬찬아' | 양혜지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마이너리티를 위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찬찬아'이다.

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찬찬아'입니다. 까마중 작가님의 웹툰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의 줄임말이기도 해요.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이나 생애 과제를 잘해 내지 못했더라도, 평생 치부라고 생각하던 자신의 정체성에 적응해 내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세상과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 마이너리티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다양성과 연대의 차원에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저는 현재 서울청년센터와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의 지원을 받아 활동 중입니다. 최근 들어 차별과 그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모습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안을 떠나 다양성과 연대의 차원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저의 현재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찬찬아',
양혜지님이 궁금하시다면
[instagram.com/thisbe_ith](https://www.instagram.com/thisbe_ith)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콘텐츠 제작에 몰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청년센터 금천오랑과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팀 '찬찬아'의 일원으로서 N개의 공론장 <보이지 않는 차별을 보이게 한다면>을 진행하고 있어요. 남은 한 해 동안은 양질의 콘텐츠를 잘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에요. 이후 일정은 아직 미정이에요. 이 활동을 직접적으로 직업과 연계 짓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를 유의미하게 쓰고 싶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동료 시민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프로젝트 N개의 공론장 <보이지 않는 차별을 보이게 한다면>을 진행하면서 무지로 인한 차별과 혐오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제 실생활에서도 언어/행동/시선 등에서부터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제가 경험한 변화를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획일화된 행복 공식, 성공 도식을 넘어 다양하게 저마다의 빛과 색으로 반짝이는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STAY.6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6를 통해 인식이 달라졌다.

프로젝트의 수행과 마케팅적인 요소를 함께 고민하다 보니 공공사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보수적이고 변화에 늦장 부리는 인상이 강했는데 STAY.6와 함께하며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려 노력하는 활동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빛과 색으로 인생을 직업을 고민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며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차별에 맞서는 N개의 공론장 - 약속문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셀프멘탈케어 #유리멘탈극복 #마인드강화 #교육컨설팅

셀프멘탈케어연구소 대표컨설턴트 | **오화랑**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스스로의 성장을 돕는 셀프멘탈케어연구소 대표컨설턴트이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자기 자신/우리 회사를 믿고 실행하는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셀프멘탈케어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주도적인 성장이 되니까요. 그 가치를 담아 쉽고 실용적인 강의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면접 스피치, 기업을 대상으로는 CS교육, 마인드 강화 등의 다양한 주제로 활동해요.



셀프멘탈케어연구소 대표,
오화랑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lilyoh1>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사람이다.

해외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기업에서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수용도가 자연스럽게 폭넓어졌죠. 그래서 각각의 개인과 조직에 맞춘 강의나 컨설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셀프멘탈케어연구소에서 제공하는 3가지 주요 교육은 1) 전문 스피치 컨설팅, 2) 고객만족 CS컨설팅, 3) 셀프맞춤케어 컨설팅 (자존감 회복, 마인드 강화, 감정관리, 심리상담)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고객별 맞춤 교육과 방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할 때 사용하는 포인터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콘텐츠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단은 제 브랜딩을 제대로 잘 만들어 자리를 잡고 싶어요. 개인 YouTube 나 블로그는 새로 시작하는 단계여서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끔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이름으로 된 책을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초고를 작성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퍼스널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해내서 자리를 잡고 싶습니다.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수동적인 직장인에서 주도적인 직업인으로 가는 여정 위에 있다.

예전에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회사 위주였어요. 그 안에서 스스로 소모되는 부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감도 많이 들어 늘 불안하게 살았어요. 요즘은 저 스스로 직업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유롭게 나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아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에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다.

우선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좋았어요. 그들을 통해 저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의 강의를 들으며 저만의 꿈을 새롭게 정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은 1인 기업가로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많이 망설여지고 막막했어요. 8월만 해도 직장인이었는데, 운명처럼 STAY.G를 만나 9월에는 직업인이 되었죠. 이곳에서 제 회사 이름, 블로그, 방향성 등을 모두 정할 수 있었어요. 꿈을 향해 작게나마 한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몸과 마음이 단단히 자리 잡도록 돕는 당신의 치유메이트

#몸과마음의회복 #SNPE #바른자세척추운동 #땡큐살롱 #감사일기

몸과 마음의 치유메이트 | 이서영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마음과 몸의 뿌리를 만드는 치유메이트 이서영이다.

3년 전, 갑작스러운 불안장애와 몸의 이상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감사일기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꾸준히 써온 결과 불안장애는 회복되었고, 제 삶은 더욱 빛나고 따뜻해졌어요. 감사의 힘으로 일어나게 된 경험을 토대로 마음 근육을 키우고 SNPE(바른자세척추운동)를 통해 몸의 근육을 단련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단단하고 따뜻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몸과 마음의 치유메이트로서 SNPE 수업을 하고 있고, '땡큐 살롱'을 준비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의 치유메이트,
이서영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inpock.co.kr/thank_you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코랄빛 따뜻함'과 '몸 전체의 밸런스'를 선물한다.

저에게는 코랄빛 에너지가 많아요. 바로 따뜻함의 에너지죠. 제 에너지를 토대로 사람의 몸과 마음이 아픈 경험을 공감해주고,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면 실제 몸의 밸런스가 좋아져요. 실제로 "올해 내돈 내산 한 것 중에 가장 값진 건 선생님을 만나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어깨와 목이 불편해서 상체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불편함 없이 개운해지고 일상이 편해지니까 하체의 비뚤어진 정렬에도 이제 눈에 들어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만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수업하는 스튜디오를 오픈하는 꿈을 꾀다.

제 목표는 1년 후 저만의 스튜디오에서 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예요. 현재 몸은 SNPE 바른자세척추운동 인증 강사로서 활동 중이고, 마음을 다루기 위한 '땡큐 살롱'을 준비 중이에요. 올해는 저만의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이후의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제 스튜디오에서 SNPE에 다양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저만의 수업을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꿈꿉니다.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개인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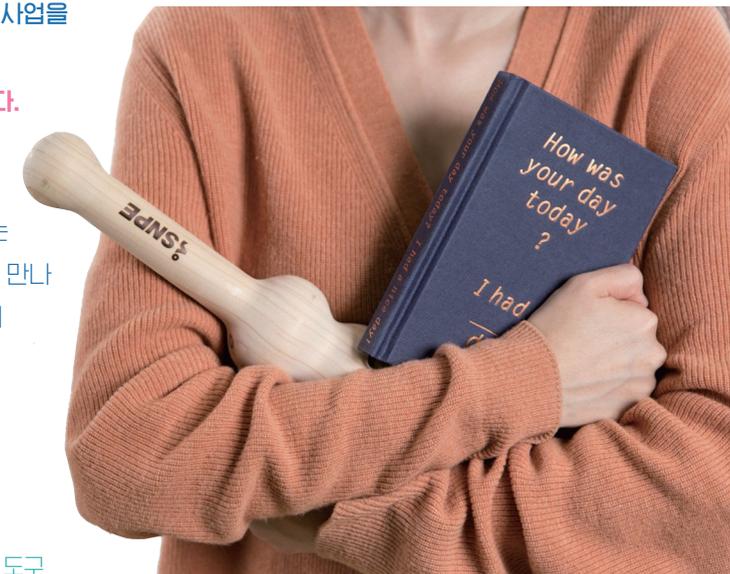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부정적이고 개인주의가 강해졌었어요. 하지만 감사일기를 쓰면서 점점 더 일상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소소하고 찼하게 감사를 느끼면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느낀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브랜드를 견고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를 통해서 나만의 이키가이를 찾았다.

이키가이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한 것', '돈이 되는 것' 크게 4가지의 벤다이어그램의 겹치는 부분을 통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 것인데, 너무나도 멋진 코치님들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더욱 뽕족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감사일기장, SNPE 도구



위기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촉매제, 변화하는 세상에서 앞서가기 위한 마지막 20대의 도전

#자기계발 #유튜버 #성장하는삶 #퇴사후 #나를찾아서

디지털 크리에이터 | 이소희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이전에는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랬던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나'라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성실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퇴사 후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훨씬 많은 기회와 마주하고 있다는 걸 실감해요. '크리에이터'를 아직은 직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주고객층이 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점점 크리에이터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크리에이터,
이소희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sohi_yy



Q. 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자기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자질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크리에이터의 일이죠. 같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자기만의 가치'라는 건 결국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독서나 자기계발도 저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찾기 위한 과정이므로 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열심히 쌓고 다듬어 만든 '나'만의 시각으로 콘텐츠를 세상에 전달하는 거죠.



퇴사 후 진짜 나를 찾게해준 카메라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세상을 향해 so high 날아가는 '쏘하이SoHi'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유명인'이 되고 싶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초점을 두는 건 '영향력'이에요. 저에게 있어 인플루언서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저만의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고, 누군가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저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증거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회사의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제가 실행한 선한 일들을 공유하는 등 제 '관심과 경험'이 쌓이면 그것 또한 하나의 사회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 채널에 모여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회 공헌 회사 CSR팀에서 일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사 후 1인 크리에이터의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개인의 일의 영역에서 볼 때도 사회나 환경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에서 '세상'을 만났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의 합이 결국 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STAY.G의 <인시대> 프로그램은 제 '세상'을 넓혀줬어요. 작가, 아나운서, 사업가, 푸드스타일리스트, 유튜버, 공무원, 음악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자기 브랜드를 다듬고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함께했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수많은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 시간을 통해 넓어진 세상 속에 점들이 모여 저만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뻗어나가길 기대해요.

당신의 일상과 아이টে 꼭 필요한 몰리언니의 사용설명서

#유튜버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파워블로거 #마이크로인플루언서

디지털 노마드형 인플루언서 몰리언니 | 이윤희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디지털 노마드형 인플루언서 '몰리언니'이다.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몰리언니'입니다. 먼치킨 고양이인 반려묘 몰리를 따서 만든 '몰리언니'라는 닉네임으로, 부담 없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디지털 노마드형 인플루언서로서 직접 경험해 본 솔직한 리뷰 콘텐츠를 제작,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기업으로부터 제품, 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영상 제작을 의뢰받아 수익창출로도 확장해 나아가고 있죠. 몰리언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콘텐츠의 공신력을 높여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형 인플루언서 몰리언니,
이윤희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bizspeech>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전달력과 정보력을 갖춘 크리에이터이다.

TV 방송진행자와 강사로서의 오랜 경험이 있어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안정감 있는 목소리와 말의 전달력 또한 좋은 편이에요. 또 대학 재학 시절부터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도 했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과정도 세세히 알고 있다 보니 '몰리언니'로서 양질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요즘은 결혼 2년 차 새댁으로서 직접 경험한 아이টে와 최신 정보들도 콘텐츠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사용설명서' 느낌의 콘텐츠부터 방송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디지털노마드를 지향하고 있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유튜브 채널은 1) 여행, 맛집, 장소 2) 열정 주부 살림 아이템 3) 뷰티, 패션템의 '사용설명서'와 같은 컨셉으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에요. 그 외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사진과 글로 소통해요. 현재 다양한 기업의 러브콜을 받아 광고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앞으로는 공공기관, 관공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명소를 탐방하는 콘텐츠도 제작해보고 싶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주변을 빛내주는 역할에서 주체적인 디지털 노마드로 거듭나고 있다.

사실 그동안은 함께 하는 주변인을 빛내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어요. 개인 의견을 최소화하면서 공적인 이익에 집중해야 하는 일이 많았죠. 현재는 1인 크리에이터로서 내 생각과 의견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좋아요. 의뢰받는 서비스나 제품에 있어서 제 의지대로 기획하고 선택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인 디지털 노마드로 거듭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뷰 영상 콘텐츠 작업에 필요한 노트북, 카메라, 마이크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를 통해 취미가 아닌 전략적인 직업으로 작업에 임하게 되었다.

SNS 채널에 대해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단순한 취미로 해왔던 SNS 채널들이 훌륭한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소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강사님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콘텐츠 기획 강이가 특히 좋았고 기억에 남아요. 함께 하는 멤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동기부여와 좋은 자극도 받을 수 있었어요. 프리랜서로서 더욱 전략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었어요.

가성비 폭발! 6개월 생활비 200만원대로 알차고 재밌게 살아가는

#프로절약러 #N잡러 #직장인유튜버 #재미와효율 #두마리토끼

프로절약형 크리에이터 | 해이나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프로절약러 해이나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모든 일'에 도전하고 있어요.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어요! 직장인, 재테크 유튜버, 캐나다 교포 출신 영어선생님, 크리에이터, 전자책 저자까지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라이프스타일은 '절약'에 맞춰진 프로절약러입니다. 더 벌기위해 일하고 덜 쓰고 더 모으는 저의 하루하루를 유튜브 채널에서 '해이나'라는 이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프로절약형 크리에이터,
해이나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bit.ly/33VIEgl>



매일 매일 찢어지는 가방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내가 가진 무기는 최고의 재미를 최고의 효율로 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 속에서 재미와 행복을 발견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중요한 가치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효율성', 그래서 저는 효율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맛집이라고 웨이팅하느라 시간 쓰고 비싼 돈을 주고 먹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살았던 제 눈에 한국은 효율성 높은 행복과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곳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쪽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웠어요.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제 눈에 띄었던 경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하고 싶은 모든 일에 도전하며, 프로절약러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과 계속 공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에 모두 도전해볼 생각이예요. 직장인과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병행하며 '가성비'를 챙긴 일상 속 재미를 공유하고, 동시에 영어 강사의 경력 또한 꾸준히 쌓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교포이다 보니 2개의 언어와 더불어 북미와 한국의 문화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언어를 가르치는데 있어 강점이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학교를 마친 후에 직장생활을 했었고,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 경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최근에는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 웹북도 작성하고, 영어 스터디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함과 동시에 영어나 절약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프로N잡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능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하나 진득이 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기본적인 기질이 워낙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꽃하면 일단 실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 저에게 맞고 지속적으로 재미를 느끼는 일들은 꾸준히 지속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저에게는 그 모든 것에 도전하는 삶 자체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온 게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경험 하는 삶을 살며 콘텐츠를 만드는 다능인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에서 '열정'을 만났습니다.

STAY.G에서 진행했던 <1인시대>를 통해 많은 인연과 자원이 생겼어요. 직장과는 또 다른 '동료'와 '멘토'를 만났죠. 매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하고만 만나다가 새로운 공간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같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응원하고, 피드백해주는 관계로 발전하더라고요. 비슷한 길을 걷는 든든한 지원자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강사님들도 정말 아낌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내주셔서, 이제 제가 배운 것들을 잘 삶에 적용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신선함, 화려함 그리고 분위기를 음식에 담은 푸드스타일리스트

#푸드스타일링 #음식연출 #광고촬영 #음식플레이팅 #푸드스타일리스트알리나

푸드스타일리스트 | 정해성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푸드에 색감을 더하는 '푸드아티스트'다.

얼굴에만 메이크업이 필요할까요? 음식에도 메이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예쁘게 차려진 음식을 마주하면, 더 손이 가기 마련이죠. 작품 촬영을 할 때 현장에서 보는 음식은 빛이 나고 너무 예쁘죠. 마치 영화 속 화려한 여배우 처럼요. 음식 연출을 위해 요리에 꽃을 뿌려 꾸며주고, 붓칠해서 맛있어 보이게 화장을 시켜주는 일. 다수에게 눈으로 음미시켜주고 음식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맛있고 영감을 주는 음식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푸드스타일리스트,
정해성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tablebyalina>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러시아 목각인형'처럼 열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아티스트이다.

색감, 재료, 색을 통해 묻히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눈이 가는 결과물을 좋아해요. 혹시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보셨나요? 제가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컬러를 말로 표현하자면 그 영화와 같은 이국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컬러를 선호해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했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서비스 하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한국 음식 보다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혹은 다양한 컬러를 가장 잘 살려 줄 수 있는 작업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만의 개성을 살린 푸드 메뉴촬영과 K-Food 알리는 프로젝트를 도전할 예정이다.

개성 있는 카페, 레스토랑의 메뉴촬영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국적인 분위기의 음식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특색을 잘 살려 담아낸 음식 연출을 해보고 싶어요.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러시아어로 한국요리 레시피를 찍어 한식을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어가 특기이기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식 레시피를 물어올 때가 종종 많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한식을 알리는 데에 앞장서고 싶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꿈이 없던 사람에서 현장을 누비는 아티스트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기약 없는 백수 상태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이 살았었어요. 하루종일 할 일이 없다는 것만큼 괴로운 것 없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을 돌이키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푸드스타일링"을 찾게 되었죠. 이 일이 저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고, 매일매일 어떤 요리작품을 만들어, 소개하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과 열정으로 살고 있어요. 이제는 현장을 누비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요!



화려한 디저트 위에 허브로 포인트를 주는 순간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를 통해 처음으로 눈을 떴다.

세상에 나를 알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푸드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처음엔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나를 드러내는 방법을 코칭 받았어요. 뮤지션, 크리에이터, 작가, 강사,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볼 수 있었기도 하고요. 혼자서 어두운 터널을 가다가 갑자기 빛을 본 기분이에요.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입니다.

퀘렌시아는 본연의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

#퀘렌시아 #평온한액터정 #액션모티베이터 #평생성장 #공간콘텐츠기획자

퀘렌시아 큐레이터 | 평온한 액터정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퀘렌시아 큐레이터'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만의 퀘렌시아를 찾아 어느 순간에 가장 나다운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해주는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으로 퀘렌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퀘렌시아는 침대 위 일수도, 모닝커피 한 잔 일수도, 낮과 밤이 교차 되는 매직아워일 수도 있는 거죠. '퀘렌시아 큐레이터'로서 사람들이 '나다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며 사람이 책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영감을 주는 공간을 발견하고, 취향에 맞는 공간을 소개하고, 결이 비슷한 사람을 모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죠.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희열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한 후로는 공간과 사람, 취향을 잇는 '퀘렌시아'에 푹 빠져있어요.



퀘렌시아 큐레이터,
평온한 액터정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actorjung>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평생 성장하는 삶을 꿈꾸는 평온한 액터정(액션 모티베이터 정희원)입니다.

"열정, 호기심, 실행력, 끈기, 균형" 저의 핵심 강점입니다. 제 근간에 있는 Core 강점은 바로 '열정'이에요. 무엇을 해도 쉽게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고, 혹은 지치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탄력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늘 7살과 같은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궁금한 것은 실제로 경험해보야 직성이 풀리고, 계획보다 '실행'이 좀 더 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먹은 일은 '끈기'를 갖고 꼭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액티브한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알아차리고, 스케줄을 조정해 '균형'을 맞춰 평생 성장을 꿈꾸는 중입니다.



나다운이 발현되는 순간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퀘렌시아 큐레이터'는 영감을 주는 공간을 발굴해 사람들에게 큐레이팅 해주는 사람, 공간을 만든 사람들의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사람, 공간에 모인 사람들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사람이예요. '퀘렌시아'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간, 건축, 풍수 등 다양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실제로 자신의 퀘렌시아를 나누고 함께 그 공간에서 생각과 취향을 나누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런거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은 매일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좋아하는 일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일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약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 혼자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꽤 오랜시간 성장에 목말랐던 시기가 있었어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한창 동안 책, 강연, 멘토 등 '배움'을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충분히 '채움의 시간'을 쌓고 나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난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목했다면 지금은 제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그 경험을 해보고 나니, 타인의 성장을 돕는 액션 모티베이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이상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의 힘' '꾸준함의 힘'으로 평생 성장하며 살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라는 따뜻한 연대 속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STAY.G의 <인시대> 기간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퀘렌시아 큐레이터'의 정체성을 뾰족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퀘렌시아'라는 매력적인 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책쓰기 과정을 통해 제가 사람들에게 진정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깊게 고민해 보며 구슬을 하나로 꿰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칫 장기화 된 코로나로 우울하게 보냈던 이 시기를 '따뜻한 연대' 속에서 '퀘렌시아 큐레이터'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며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상을 반짝이게 만드는 일을 사랑합니다

#콘텐츠크리에이터 #디자이너 #다이어리 #다이어리속지 #글쓰기

눈꽃작업실 | 주눈꽃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눈꽃작업실 주인입니다.

“일상을 반짝이게 만드는 일을 사랑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눈꽃작업실’이라는 블로그와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20공 바인더 속지를 직접 디자인해서 사용하면서, 블로그에 속지 파일을 무료로 공유하는 게 시작이었어요. 이후 누구나 일상을 자기 스타일에 맞게 기록할 수 있도록 다이어리 속지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어요.



눈꽃작업실,
주설화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instabio.cc/20221JGX8ac>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시작이 빠른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빨리해보고 싶어 안달이 나는 성격이라서 시작이 빨라요. 실증을 잘 내기 때문에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두루두루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에너지가 확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이어리 디자인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 다이어리를 늘 사용하는데 마음에 드는 속지가 없어 고민하다가 스스로 나만을 위한 속지를 디자인했고, 결국 현재는 그렇게 디자인한 속지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기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해서, 글로 먹고 사는 삶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나 ‘기록’이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죠. 그런데 기록하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제가 기록을 하는 이유, 방법 등을 글로 쓰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기록할 수 있는 툴을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리 속지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 또한 누구나 자기 스타일에 맞는 기록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기록 동기부여, 독서에세이 등 좋은 글쓰기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데일리퍼스투캘린저’ 또는 ‘나는 나답게 독서하기로 했다’ 라는 시리즈로 독서와 독서노트 기록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비정기 콘텐츠를 연재중입니다.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경주마처럼 달리는 대신 낙타처럼 걸기로 했습니다.

목표나 성과 같은 결과보다는 성장 과정에서의 마음 챙김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과에 중점을 두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좋았지만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저와 맞지 않아 힘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 저한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로소 일상이 반짝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은 저에게 맞는 속도로 천천히 일상을 곱씹으며 뚜벅뚜벅 걷는 낙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드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를 통해 뾰족한 나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오히려 하나에 집중하지 못했던 제가 뾰족한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하기는 했지만 ‘브랜드’가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아 놓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찾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스토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던 제 콘텐츠를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굿노트 속지 파일만 판매하고 있지만 추후 문구류, 굿즈까지 범위를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돈 문제를 풀어가면 마음의 문제도 해결된다

#돈 #가계부 #행복 #마음테크 #재테크

미스페니 | 진예지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마음 편한 재테크를 교육하는 미스페니입니다.

‘마음 편한 재테크’는 경제적 불안은 줄이고, 마음의 안정은 높이는 돈 관리 방법이에요. 경제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면서, 돈 문제는 마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돈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그동안 막혀있었던 마음의 문제 역시 해결된다는 걸요. 마음 편한 재테크를 통해 고객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돈과 마음의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고 싶어요.



미스페니,
진예지님이 궁금하시다면
linktr.ee/jinyeajee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문제는 사실 누군가에게 공개하기 꺼려지는 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어려운 고민을 저를 믿고 나눠주었다면 저도 그에 맞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상황만 보고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거기서부터 질문들이 많이 떠올라요. ‘이 분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이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순수한 관심에서 나온 질문들은 돌고 돌아 고객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할 때 정말 기뻐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미스페니의 경제상담소를 오픈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프로그램이 모두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STAY.G의 1인시대 강의도 거의 Zoom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저도 Zoom을 통해 미스페니만의 온라인 경제상담소를 운영해보고 싶어요. 더 많은 분들과 돈 고민을 나누고 싶거든요. 경제 교육도, 칼럼 쓰기도 좋지만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 건 일대일로 내담자를 만나고, 그분이 변화해가는 걸 응원할 때예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중이에요.

과거에는 돈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했었다면, 최근에는 ‘독립’에 대한 에세이 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돈 얘기를 하다보니,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한 명의 성인으로써 독립적으로 서 있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충분한 돈을 확보해 내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문제 없이 해결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근심과 걱정을 모두 해결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구축할 수 있을까? 가 이번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돈이라는 주제를 포함해 더 다양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미스페니의 첫번째 책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에서를 통해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1인 브랜드로 일한다는 게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로운 일이기도 해요. 모든 문제를 나 혼자 고민하고 결정한다는 게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1인시대> 사업을 통해 제 일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거죠. 그리고 지금 잘 하고있는 것인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피드백 받을 수 있었어요. 제 문제를 더이상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큰 힘이 되어요.

나는 내가 상어인 줄 몰랐다 어항 속 코이 물고기가 아닌 바닷 속 상어가 되어간다

#성장 #2030밀레니얼 #경제적자유 #뉴타입업 #린치핀

라이프 디자이너 | **최기현**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보는다면?

나는 방향하고 있는 밀레니얼세대에게 삶의 관점을 제시하는 '라이프 디자이너'다.

제 비전은 밀레니얼세대의 정신을 갖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기계발적 도구(독서, 글쓰기, 마인드, 사이드허슬 등)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지만 방법과 도구를 모르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기 때문에 '라이프 디자이너, 최기현'이라는 브랜드 명을 선정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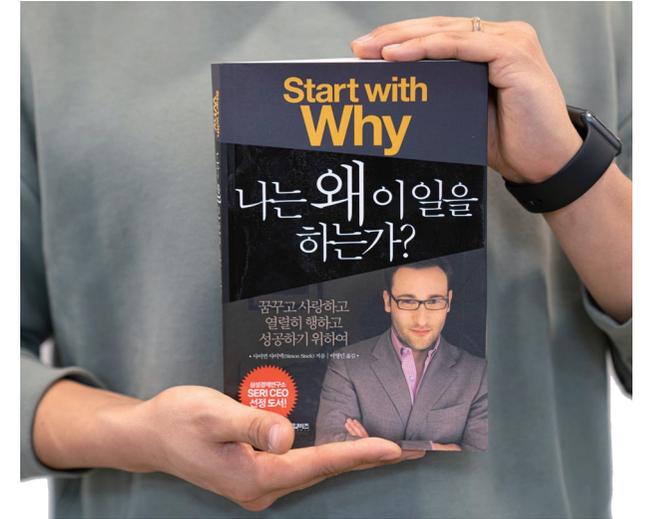
라이프 디자이너,
최기현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instabio.cc/lifedesignerchoi>



Q.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개성, 젊음, 지속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가치/젊음/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밀레니얼 세대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돈이 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일, 젊음을 느낄 수 있는 일, 지속 가능한 일 이 3가지 키워드가 제가 추구하는 가치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죠.



군에서 읽었던 책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현재 시도하고 있는 N잡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YFC독서모임을 토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로도 확장시킬 계획이 있어요. 이후 독서뿐만 아니라 저만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젊은 생각을 가진 크루들을 모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월급 외 추가 수입 컨설팅 <사이드 허슬러>에 집중해서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분을 도울 것입니다. 21년에는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제 출판사에서 출간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바닷 속 상어가 된 코이 물고기이다.

군대 있을 때 저는 코이 물고기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코이 물고기 아시죠? 어항에 넣으면 그 어항만큼만 자라는 물고기예요.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몸을 변형시키는 물고기죠. 책 <린치핀>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애초에 내가 큰 사람이었구나. 환경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 환경을 바꾸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더 큰 물고기로 성장하고 있어요. '아 나는 원래 상어였구나. 원래 수족관이 아닌 포식자로서 바다에 있는 상어였구나.'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드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에서 타이탄의 도구를 모았다.

저는 STAY.G에서 진행한 <1인 시대>를 참여하면서 생각의 깊이와 가능성의 확장성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김선진 대표님과 개인적인 미팅을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군 관련 강연 에이전시)과 실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 몰입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인 시대>를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 수 많은 타이탄의 도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찾는 재미, 피크닉 전문가

#메이드파니 #피크닉 #소품 #일상에서찾는재미

메이드파니 | 한환희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피크닉 전문가 '메이드파니'입니다.

피크닉이라는 단어는 3년 전부터 저의 일상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사람들은 왜 피크닉을 할까?'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피크닉이 평일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환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까운 한강이나 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번외편 같은 거죠.

환기는 우리의 일상을 강화하는 방법이고, 그걸 도와주는 피크닉은 우리의 일상을 강화해 주는 도구라고 정의 내렸어요.

환기는 우리의 일상을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피크닉이라는 도구를 통해 일상을 환기할 수 있도록 피크닉 소품을 만들고, 저에게 피크닉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요. '메이드파니'라는 저의 브랜드를 통해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재미를 찾고, 다시 매일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힘을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크닉 브랜드 '메이드파니',
한환희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madefannie>

Q. 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언제나 일상 속 '온기'를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저에 대해, 또는 메이드 파니 제품에 대해 밝고 따뜻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얼마 전 '독특한 계절 감'이 느껴진다고 표현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오묘한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한 계절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차가운 겨울을 지나 기다렸던 포근한 봄, 미간이 찌푸러지는 더위가 아니라 그늘 아래 느껴지는 따스한 여름, 갑자기 찾아온 추위 속 햇살 아래 느껴지는 포근한 가을, 차가운 몸을 녹이는 난로 앞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겨울.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저는 사계절 속에 늘 '따스함과 온기'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의 브랜드 컬러인 빈티지 옐로우 색 안경을 쓰고 일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저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해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MADEFANNIE 라는 프렌치 감성 피크닉 전문 브랜드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FANNIE예요. "파니가 만든다. 재미를 만든다"라는 뜻을 담은 브랜드명으로 일상에서 찾는 재미를 제품에 담아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메이드파니라는 브랜드를 통해 저처럼 익숙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분들에게 다시 일상의 재미를 찾아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제품을 통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제 브랜드가 전하는 따스함과 피크닉이라는 소재를 통해 일상의 환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피크닉 제품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폭넓게 홈크닉 캠프닉 등 다양한 카테고리 확장할 예정이에요.



'일상을 피크닉처럼' 메이드파니의
butter than yesterday 피크닉 소품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선명한 '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작은 행복을 구석구석 찾아 누리다'는 마음으로 일상 속에 조각조각 흩어졌던 행복을 찾아가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 조각들이 모이고, 맞춰지면서 제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서 몰랐던 일상 안에 숨겨있던 조각들을 발견하면서 몰랐던 제 취향도 알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같은 제 안의 조각들이요. 지우고 싶던 기억들도 어느새 쓸모 있는 조각이 되어 삶의 빈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피스들을 발견하고 모으면서 더 선명한 '나'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Q. 마지막으로! STAY.6에서 진행한 1인브랜드링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6에서 '글쓰기'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STAY.6에서 책쓰기 how to 강의를 들었는데 그 수업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품으로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약간의 갈증이 있었거든요. 글을 쓰고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매력적이라고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책쓰기 수업을 통해 글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고, 용기 내어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곧 글을 통해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만남과 이별의 과정에도 운과 흐름을 점검하는 처방을 내려드립니다

#감성사주 #타로카드 #재회 #짝사랑 #연애세포

만남과 이별을 이야기하는 감성주치의 | **허준**

Q.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표현해본다면?

나는 만남과 이별을 사주로 이야기하는 '감성주치의'이다.

저에게 상담 의뢰를 하시는 분의 반 이상은 재회 이별 등의 가슴 아픈 애정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사주와 타로를 활용해 저를 찾아오는 주인공들의 삶, 상황, 운의 흐름을 확인하여 풀어보고 애정 처방을 내려드립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주인공들은 사주를 보지만 심리 상담을 받은 것처럼 위로받은 느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곤 해요. 그래서 제 역할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진단을 처방해주는 '감성주치의'라고 컨셉을 잡게 되었어요.



감성주치의, 허준님이
궁금하시다면
<https://linktr.ee/gamsungjoo>



Q. 당신만의 개성이나 특별한 점은요?

나는 심리와 사주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주치의이다.

저는 심리와 사주 두 가지를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해요. 심리학이라는 이론과 과학으로 검증된 영역, 그리고 오랫동안 내려온 지혜인 사주라는 영역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서 더 정확한 진단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필요해서 시작했고, 저 스스로가 상담의 순간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만큼 저도 힘든 순간에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는 소명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Q.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와 함께하는 활동계획은?

나는 Zoom이나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Zoom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주, 타로 상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날그날의 테마를 정하고 5~8명의 소그룹을 형성해서 진행해 보고 싶어요. 개개인의 질문을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고, 참여자들의 피드백도 듣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더불어 기회가 된다면 공공기관 등의 무료 상담 및 강의 등에도 참여해보고 싶어요.

Q.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나는 직장인 허대리에서 신개념 감성주치의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현재 야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직장인 허대리에서 신개념 감성주치의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사주와 타로를 매개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처방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저 자신의 불안과 내면 문제 때문에 위로가 필요해서 시작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를 하는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저를 찾아준 분들에게도 위로와 치유를 드리면서 함께 성장해가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STAY.G에서 진행한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요?

나는 STAY.G에서 브랜딩의 개념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1인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서 브랜딩의 개념을 처음 배우게 되었어요. 전공 서적을 통해서 <자기수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심취해 있던 차에 콘텐츠 컬렉션 이진아 대표님의 개인적인 일화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불행이라고 여겨질 만한 일에도 자기수용을 통해서 자기화한 모습이 몹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본래의 저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야말로 '감성주치의'로서 진정한 성장 있는 상담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감성주치의가 가장 애정하는 문가든 타로카드

STAY.G와 만나기

소통채널

홈페이지	www.gangnam1.org
인스타그램	gangnam.one
페이스북	facebook.com/gangm1c
유튜브	STAY.G - 강남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카카오채널	pf.kakao.com/_llxhxcT
이메일	master@gangnam1.org
전화	02.552.1101

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1층
지하철 2호선 역삼역 1번출구에서 200m

2020 Annual Report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첫 1년의 기록

발행처 강남구청
(사)한국공유경제진흥원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발행일 2021년 4월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1층

전화 02.552.1101

홈페이지 www.gangnam1.org

이메일 master@gangnam1.org

기획·집필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정재욱 | 정수미 | 이화용 | 이시은

편집·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STAY.G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본 자료집은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의 기록물입니다.

자료집의 내용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STAY.G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2020 Annual Report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첫 1년의 기록



STAY.G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